

2022년도
제2회

교육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 수상작 모음집 -



머리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백성혜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예비교사들을 교육하면서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실천적 교수 역량을 가진 예비교사를 기르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교육 봉사 시간을 활용한 수업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교사들에게 직접 학생들을 지도할 기회를 주었는데, 아직 많이 미숙한 예비교사들이라 보니, 학교에서 그리 반겨주지를 않았고, 교생실습과의 차별화도 크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어려움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외부인을 받기 꺼렸던 것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학교에서 훌륭한 강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진로체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직업 소개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 직업을 만든 분들을 강사로 섭외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교사들과 전문강사들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교육을 시도하였습니다. 사실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학생들이 아닌, 예비교사들입니다.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생 관리의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서 교육의 본질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예비교사의 실습지원 체제를 잘 구축하고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예비교사들이 미래 학생들의 진로교육 교수법을 체득하고 훌륭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수업지원단이 더욱 많은 예비교사들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과 교육봉사활동 수기 공모전에 참여해 준 모든 예비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 차

대 상

-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의 학교 탐방기 ----- 9
전하숨 / 기술교육과

최우수상

- 교육 봉사에서 배운 업.협.참.소. ----- 15
황채운 / 컴퓨터교육과
- 너희는 나의 제자이자 스승님이야 ----- 21
조현서 / 컴퓨터교육과

우 수 상

- 내가 너의 보폭으로 갈께 ----- 27
성채원 / 윤리교육과
-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밸런싱아트 교육봉사활동 수기 ----- 35
이화륜 / 초등교육과
- draw my 교육봉사 ----- 42

양민호 / 가정교육과

- 나의 교육봉사 일기 ----- 47
박시은 / 물리교육과

장 려 상

- 같은 장소, 다른 경험 ----- 55
강하빈 / 영어교육과
- 교육봉사는 고민하는 나를 낳는다. ----- 63
김시은 / 초등교육과
- 나의 꿈, 특수교사 ----- 70
이채원 / 특수교육과
-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 ----- 78
류성진 / 초등교육과
- 선생님 덕분에 ----- 85
남유진 / 초등교육과
- 선생님이라기엔 먼, 선배라기엔 가까운 배생님으로서의 8일 ----- 93
서현진 / 음악교육과
- 학교별 교육봉사 탐험 ----- 101
오채진 / 컴퓨터교육과

참 가 작

• ‘호두’같은 시간 김가연 / 일반사회교육과	-----	110
• 함께 성장한 학습지원활동 김건훈 / 영어교육과	-----	1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우 / 지리교육과	-----	118
• 사랑의 다른 이름 이가은 / 생물교육과	-----	121
•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이승연 / 영어교육과	-----	123
• 교학상장 박정수 / 기술교육과	-----	126
• 교육봉사를 통하여 바뀐 나의 고정관념 장용원 / 화학교육과	-----	131
• 두 명의 멘티 최한나 / 초등교육과	-----	136
• 함께 걸어가는 길 이예림 / 윤리교육과	-----	140
• 敎奉問答(교봉문답)-봉사를 통해 성장과 배움을 이루다. 신황 / 수학교육과	-----	145
• 스토리가 있는 수업의 힘이란... 위정환 / 지구과학교육과	-----	151

<대상>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의 학교 탐방기

전 하 숨
기술교육과

예비교사로서 교육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된 지금의 제도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특별한 교육봉사를 찾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었던 차에, 다양한 학생과 학교급을 접할 수 있고, 교과수업을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을 알게 되면서 지난 2021년 겨울과 2022년 겨울, 두 겨울을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의 예비교사로서 학교 현장을 접할 수 있었다.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으로서 총 9개의 학교를 방문하였으며, 그 중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 특수학교가 1곳이다. 이번 수기는 예비교사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접하면서 방문하였을 때 느낀 점과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을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 및 앞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생각했던 나의 다짐을 담고자한다.

너무나 순수했던, 초등학교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는 중등 예비교사이므로 초등학교 현장을 접할 기회는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러나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밸런싱 아트’와 ‘4D 프레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밸런싱 아트’에서는 강사님의 시연과 학생들의 밸런싱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4D 프레임’에서는 학생들이 반복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몸을 써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1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 참여 전의 나에게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군 사이에 차이가 큰 학생들을 모두 교육하고 지도하며, 모든 교과를 수업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고 지도해야하는 것이 급한 내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서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하나 생각하며 지레 겁먹었던 지난날의 나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강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이런 내 생각을 조금 바꿔주었다. 학생들의 밝고 순수한 모습, 조건 없는 리액션, 즉각적인 대답은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물론 그들의 집중시간과 열정적인 모습이 반비례하였지만,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태도 자체는 나의 열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나는 초등학생은 다룰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다음에 초등학교를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1-2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을 보니, 확실하게 나의 초등학교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장난기 가득한, 중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프로그램은 '예술기반 자아탐색'과 '밸런싱 아트'로, 중학교에서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특히 내가 전공하고 있는 과목은 대부분 중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에 부풀었었다.

중학교에서는 '예술기반 자아탐색'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평소 뼈뿔게 행동하는 학생이나 소극적인 학생 등 이렇게 다루기 힘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예비교사들에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강사님의 모습이 추운 겨울 날에도 따뜻하게 가슴에 남았다. 교사의 역할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올바르게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생활지도도 크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작년 겨울 학생들을 통제하고 배려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진행

하시는 모습에서 많이 느끼고 본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배운 점을 바탕으로 지난여름에 교육실습을 잘 다녀올 수 있었고, 이번 겨울에는 작년과 다르게 더욱더 학생들과 소통하며 재미있게 교육봉사에 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사려 깊게 생각해주면서 신경 쓴다면 이 학생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따라서 훗날 중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된다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나 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 때문인지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프로그램이 가장 재미있었으며, 학생들과 소통도 가장 많이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찬 경험이었다.

나의 모습이 떠올랐던, 고등학교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으로 고등학교는 ‘밸런싱 아트’ 프로그램으로 1곳을 방문했다. 여느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예상과 같이 대답은 하지만 피곤한 느낌이 강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오면서 아이들이 적극적인 대답과 참여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 몸소 느껴지니 왜 선생님들이 점점 씁쓸해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학생들이 진로 진학에 관심이 많은 시기라 그 점에서 는 많이 도와줄 수 있었다. 또한 밸런싱 아트 프로그램이 학생 수준을 가리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래도 학생들이 잘 참여해준 모습이 좋았지만, 피곤한 아이들의 모습은 몇 년 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마냥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에게 밸런싱 아트 강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 재능을 40세가 넘어서야 발견했다.” 이 말씀은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희망 메시지로 해주시는 편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고등학생들의 가슴에 와 닿기를 바랐다. 나 또한 본래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었지만, 다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꿈이나 재능, 능력,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찾지 못하였다고 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생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기도 하고, 흔히 이야기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더 긍정적인 생각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차에 강사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해주신 저 한마디는 나에게도 크게 와 닿아 뇌리에 꽂혔었다. 따라서 언젠가 내가 고등학교에서도 근무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지금 시기는 전혀 늦은 것이 아니니 많은 것을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하면서 중학교보다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고민이 무엇보다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마디를 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가 되어 가장 근무 하고 싶은 학교가 고등학교이기 때문인지 고등학교를 한 곳 밖에 방문하지 못하여 많이 아쉬운 바가 크다. 다음 고등학교 방문은 교육봉사생으로서가 아니라, 교사로서 다시 교단에 서고 싶은 내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던, 특수학교

비록 한 번밖에 방문하지 못했던 특수학교인 혜화학교,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였지만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서 가장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학교이다. 혜화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유대감을 느꼈지만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 그 학생은 학교에서 가장 선배에 속하는 학생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이 없던 유명 인사였다. 우연한 기회에 같이 활동하게 되어 그날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프로그램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했었다. 사실 그 때의 나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 학생을 대했다. 그러다보니 단지 몸만 불편한 어엿한 남학생이었는데 너무 어린아이 대하듯이 행동했었는데, 이것이 정말 후회가 됐다. 사진도 찍고 함께 비행기도 날리고, 웃고 대화도 했었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행동한 사려 깊은 몇 가지가 그 학생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뒤에야 정말 많이 들었다. 항상 봉사와 배려를 필요로 하고 받아왔던 친구이기에 더욱 동등하고 편견 없이 대해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었다. 이후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담은 고민을 특수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

체로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그 학생에게 내가 완벽한 하루를 선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만나서 아무런 편견 없이 그를 대하고, 또 진심으로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 내가 교사가 된 이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이다. 나도 언젠가 특수학교가 아니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가르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왜 특수교육학이 필수 과목으로서 예비교사들이 학습해야하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을 마무리하며

약 2년에 걸쳐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으로서 9곳의 학교를 방문하였다. 각 학교마다 하루 반나절 남짓의 봉사였지만, 학생들의 순수하고 예의바른 모습, 열정적인 참여도와 태도는 교사라는 꿈을 가진 나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 학원이나 멘토링 같은 곳에서도 학생들을 접할 기회는 충분하지만 실제로 예비 교사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교육실습 때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했었고, 이렇게 모든 학교급을 다 방문할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

내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총 4가지였지만, ‘우주항공 키네틱아트’는 혜화학교에서 단체로 진행했던 것이 다였기에 ‘밸런싱 아트’, ‘4D 프레임’, ‘예술기반 자아탐색’의 3가지 활동을 통해 강사님들께 느끼게 된 바를 남기고자 하나.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강사님들이 정말 본인의 일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점이다. 언젠가 직업으로는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같이 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걸까? 항상 생각해왔었던 차에,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나의 일을 즐겨야 나를 보는 학생들도 에너지를 얻고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 강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어하고 사려 깊게 생각해주시는 모습도 나에게 크게 와 닿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잘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기에 나도 예비 교사로서 내가 좋아하는 학생들과 좋아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며 학생들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은 나에게 다양한 학생들을 접할 기회를 주었다. 꼬마공주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부터 말은 안 들었지만 끝까지 배웅해주던 학생, 이름을 기억해줘서 고맙다던 학생, 특수학교가 낯설어 서툴게 행동했던 나를 오히려 배려해줬던 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왔고, 이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추억의 학생들을 다시 만날 기회는 거의 없기에 너무나 아쉽지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 추억에 남은 학생들과 미래에 교사가 된 나 자신을 그리면서 의지를 더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강사 선생님, 학생들과의 추억에 이어서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예비교사 선생님들이다. 과를 불문하고 다양한 전공의 예비교사 선생님을 만나 다양한 추억을 쌓고 인연을 만들게 된 것은 정말 큰 기회였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다른 예비 교사 선생님들도 좋은 추억과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선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최우수>

교육 봉사에서 배운 엄.협.참.소.

황 채 윤
컴퓨터교육과

저는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활동을 통해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4개의 학교를 찾아다니며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수업은 '4D 프레임'을 통해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개인별로 한 개를 만들고, 개인으로 만든 것을 모둠에서 한 개로 합치고, 또 모둠끼리 합쳐서 반 전체가 한 개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예비 교사는 각 모둠을 하나씩 맡아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교육 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실제 학교 현장을 경험하며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4D 프레임으로 만든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첫 번째 교육 봉사에서는 수업 시간 엄수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 교육 봉사에서는 협동심을, 세 번째 교육 봉사에서는 참신함을, 네 번째 교육 봉사에서는 소통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간 학교는 세종에 있는 으뜸초등학교입니다. 3학년 학생들을 만났고 굉장히 밝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교육 봉사를 통해 '수업 시간 엄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시에르핀스키



▲ 세종 으뜸초등학교에서의 첫 교육 봉사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주는 요령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속도가 더뎠습니다. 게다가 이 수업은 반 전체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었기에 한 모듬이라도 뒤처지면 수업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수업 종료종이 울리자 학생들의 집중력도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만들어냈지만, 마지막 인사를 급하게 하며 수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내가 준비한 만큼 수업을 진행하고 끝마무리도 잘 맺고 싶지만 실제로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이 일찍 끝나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봉사를 통해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해 시간 분배를 잘하여 수업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학생의 입장이 아닌 이번엔 교사의 입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학교는 청주에 있는 죽림초등학교이고 이번에는 6학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교육 봉사에서 '협동심'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같은 나이일지라도 학생마다 개인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손이 빠른 친구들은 먼저 만들고 장난을 치는 등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이 느린 친구들을 도와 조금씩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려준 모듬이 1등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1등으로 만든 모듬 예비 교사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완성할 수 있었는지 혹시 학생들을 많이 도와줬는지 물어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본인은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으며 손이 빨라 먼저 완성한 친구들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게끔 했다고 대답하여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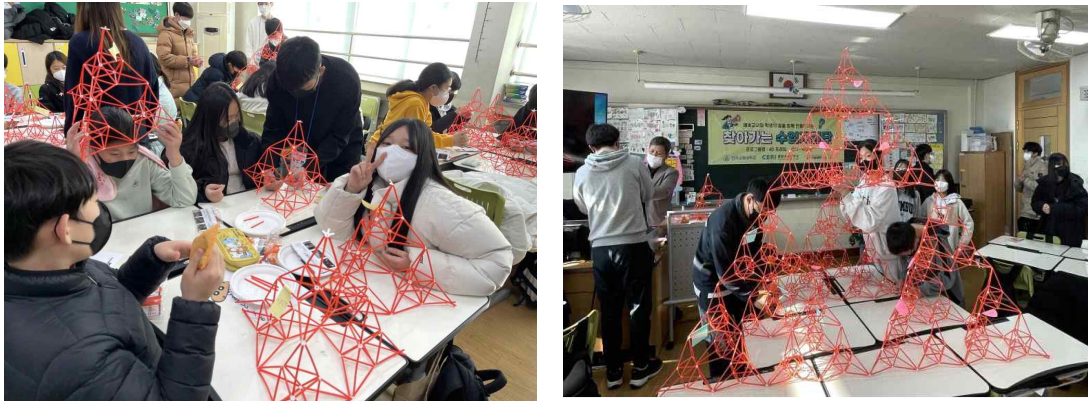


▲ 협동심을 배운 청주 죽림초등학교

끝난 학생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 노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친구를 도와주며 협력하여 완성해냈다는 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걸 누가 누가 먼저 만드는데 대한 경쟁이 아닌 협력임을 강조하며 제가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먼저 완성한 친구들이 돕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금방 완성해내고 모둠도 더욱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 이 협동심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간 학교는 청주에 있는 새터초등학교이고, 이번에도 6학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세 번째 교육 봉사에서는 창의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앞선 두 수업에서는 설명서를 보고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같은 교구를 이용하지만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없이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줘야 했고 학생들은 기존 모양보다 더 멋진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것에 대해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든 것을 해체해서 설명서를 보고 만들거나 재료를 자르고 이어서 내가 생각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줬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창의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으면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한정적이고 같은 재료라도 얼마든지 나만의 창의성으로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청주 새터초등학교에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마지막으로 간 학교는 세종에 있는 전의중학교이고 이번에는 중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네 번째 교육 봉사에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학교에서 교육 봉사를 했는데 확실히 초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피곤함이 묻어져 나가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답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월드컵은 재밌게 봤는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등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잠을 깨워주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하기 싫어하던 학생들도 잠에서 조금 깨어나 시작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멋지게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면 발문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노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세종 전의중학교에서 학생들과 브이하고 찍은 사진

교육 봉사를 하면서 사실 '같은 수업을 반복하다보니 지루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 학교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이 있어서 뿌듯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학생이 아닌 교사로 가는 것이 아직은 낯설지만 교육 봉사를 통해 연습을 하고, 교사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의 학교에 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에너지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 전까지 앞으로도 많은 교육 봉사를 통해 경험을 쌓고 배운 후,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행복했던 8일 간의 교육 봉사 활동

<최우수>

너희는 나의 제자이자 스승님이야

조 현 서
컴퓨터교육과

저번 학기 여름방학에 다녀왔던 교육 봉사가 교사라는 나의 꿈을 더 견고하게 완성해줬고 이제 견고해진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차례였다. 두 번째 교육 봉사인 만큼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겠다는 다짐으로 신청한 것도 잊고 2학년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그저 눈앞에 있는 이번 학기 성적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달리기만 했다. 이런 나에게 연세초등학교의 친구들은 다시금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이 지내는 교실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쓴 아이들의 이야기책이었다. 유튜버, 경찰, 아이돌 등 다양한 꿈을 이룬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둔 책이었다.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꿈을 이룬 자기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열심히 나아가는데 정작 이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줘야 하는 나는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몰랐다.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대학교로 돌아갔을 땐 지쳐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눈으로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들만 수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에도 열정과 생기가 돌 것 같았다.

교사가 되기 위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것뿐 아니라 교사가 된 후에도 방향을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테면 수업에 대한 방향도 그렇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 소장님이 어떻게 4d 프레임을 만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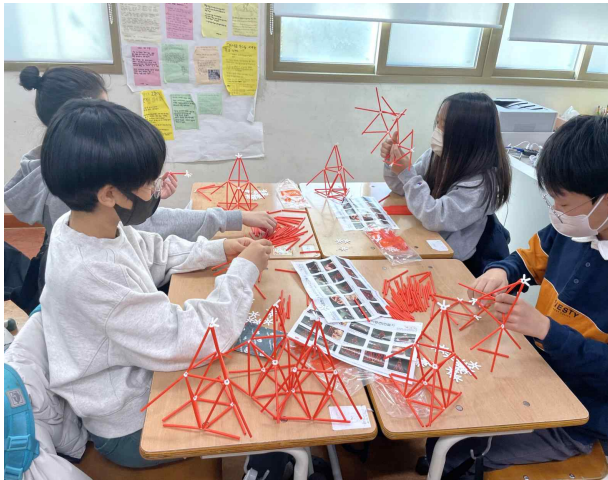
되셨는지, 함께 어떤 것을 만들지 설명하신 후 교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만들기를 진행했다. 교구를 이용해 만드는 것은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었다. 나는 그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생각해 아이들에게 순서대로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도와줬다. 묵묵히 열심히 만들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순간 멍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땐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나는 지금 내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을 대했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그리고 이런 교사에게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 수업 방식을 바꾸기 전, 모두 앞만 바라보는 학생들 >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직접 만들어보며 파악할 수 있고 만들어진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보며 어떤 성질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럼, 이 활동은 교과적인 지식만을 얻는 활동일까? 내가 만든 모양과 나를 제외하고 3명의 친구가 각자 만든 모양을 합치면 더 크고 근사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완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모듈별로 만들어진 삼각형을 반 아이들 전체가 협동하면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삼각형을 만들자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 협동심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시간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명확히 하니 이에 맞는 수업 방식도 찾을 수 있었다.

수업 방향을 수립하기 이전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 모두 소장님과 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각자가 묵묵히 ppt에 나온 설명서 사진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하는 방식이었다. 일단, 학생들에게 이 활동에 대한 흥미를 줌과 동시에 최종적



< 수업 방식을 바꾼 후 모둠으로 진행되는 수업 모습 >

으로 반 아이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12월 25일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위해 키보다 훨씬 큰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해볼 거예요. 혼자서 만들면 내 키보다 큰 트리를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함께 만들면 이번 시간 안에 근사한 트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협동을 기르도록 하는 활동인데 함께 만들 친구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것은 협동심을 기르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큰 트리의 재료가 될 작은 트리를 만들 4명이 모둠을 만들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모둠 친구들끼리 바라보며 앉는 방식으로 교실의 모습을 바꾸었다. 교실의 모습을 바꾸니 학생들의 모습도 바뀌었다. 교구를 만들던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항상 나를 찾으며 도와 달라 했던 친구들이 모둠 친구들에게 묻고 이를 들은 친구들은 이에 관해 설명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제 교과적인 지식을 전달할 차례였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랑 조금 다르더라도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얻을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기 좋은 순서로 설명했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몇 개인 것 같아?”,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둘레는 어떻게 되고 넓이는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직접 관찰하여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직접 정답을 알려줬을 때보다 스스로 고민하여 얻는 지식을 훨씬 더 잘 기억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나 역시 같았다. 대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인 수업을 들을 때보다 이렇게 교육 봉사료 부딪혀보면서 이론을 실제로

으로 반 아이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12월 25일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위해 키보다 훨씬 큰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해볼 거예요. 혼자서 만들면 내 키보다 큰 트리를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함께 만들면 이번 시간 안에 근사한 트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협동을 기르도록 하



< 함께 만들어 조명을 달아놓은 트리 >

실행해보니 왜 이러한 교육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발문을 던지는 것이 좋은지 나의 가치관과 올바른 교육 방식을 수립할 수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다. 이전에는 학생들은 그저 제자고 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만 주는 선생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난 이 아이들에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다. 교육 봉사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쳐본 후 늘 생각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자 스승님이야.’



< 매끄러운 수업 진행을 위해 고민해서 만든 ppt >

기말고사 기간에 진행한 교육 봉사 여서 그런지 ‘연세 초등학교’에서는 봉사자가 나뿐이었고 이후의 봉사에는 다른 봉사자분들도 함께 하게 되었다. 처음 봉사하면서 느끼고 얻은 것을 다른 봉사자분들에게도 공유하고 5명의 봉사자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던 중 한 사람씩 모둠을 맡아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수업 진행을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 수업을 진행해보니 수업 진행 방

식에 대해서 명확히 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업 방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그에 맞는 ppt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인 점도 고려하여 아이들이 좀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되 설명보단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수업 자료를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았다. 교육 봉사를 나가기 전에 미리 ppt를 새로 만들면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에는 많은 고민이 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고민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그려오고 원하던 방향으로 수업이 흘러갈 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교육 봉사는 ‘으뜸 초등학교’이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었는데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경쟁이었다. 원래 내가 고민하고 추구하던 수업의 모습은 아이들이 함께 협동하며 반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명씩 한 모듬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교구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모듬별로 경쟁이 붙은 것이었다. 이전 봉사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본 터라 다른 봉사자들이 진행하던 모듬보다 내가 맡은 모듬의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작품이 완성되게 되었고 이를 본 다른 모듬의 학생들이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하여 속상해하는 것이었다. 언제부턴가 수업의 모습은 협동이 아니라 경쟁의 모습이 되었고 모듬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보단 다른 친구들보다 속도가 더딘 친구 때문에 자신의 모듬이 경쟁에서 진 것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모듬도 완성하고 하나의 큰 트리를 만들었을 때는 모듬 간의 경쟁은 없어지고 처음에 내가 그렸던 수업의 모습처럼 함께 협동해서 만드는 모습도 보였다.

어떻게 하면 모듬별로 작품을 완성할 때부터 내가 그리던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독특하거나 기발한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활동은 경쟁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임을 이야기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했다.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선 내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했다. 무의식중에 내가 빨리 만들기를 강조하는 건 아닐지, 빠르게 만든 친구에게 칭찬하진 않았는지 생각해야 했다. 내 말 한마디로 수업의 모습이 '협력'을 배우는 모습에서 '경쟁'의



< 함께 협동해서 하나의 큰 트리를 만드는 아이들 >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는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다. 교사의 모습, 말투 등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한다. 교사로서 이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행동에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깨달았다. 나의 이러한 노력에 다행히 아이들은 경쟁보단 협력에 초점을 두는 듯했고 혹여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혼자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트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방법이 반드시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홀로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빨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봉사가 끝난 지금도 당시 어떤 방식으로 했어야 수업 방식을 완전하게 협동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고민해보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교육 현장에서 항상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이전보다는 더 나은 수업으로 만들 순 있다.

좋은 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성인이 된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좋은 교사’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이 떠오르냐고 질문하면 각각 다른 선생님을 이야기한다. 학생마다 좋은 교사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이다. 어떤 학생은 엄격하더라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나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너그러운 선생님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좋은 교사에 대한 정답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1명에서 2명에게, 2명에서 20명에게, 점점 더 많은 학생에게 ‘좋은 교사’로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내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는 ‘좋은 교사’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모습을 떠올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가 될 거라고 다짐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매년 늦잠을 부리다가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할수록 에너지를 얻고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때마다 더 많이 웃도록 해주고 싶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느꼈다. ‘모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먹고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삼으며 살 수 있구나.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깨닫고 나니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공부와 경험들이 소중한 것 같았다. ‘연세 초등학교’를 갔을 때 봤던 아이들이 그린 꿈을 이룬 자기 모습처럼 나도 교사란 꿈을 이룬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더 나은 사람이자, 교사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중이다.

<우수>

내가 너의 보폭으로 갈게

성 채 원
윤리교육과





다사랑 대학생 멘토링 활동 그리고 봉산초등학교 (1)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충전 중 . . .

/ 교육봉사 활동기간

2022/07/21~2022/08/22

/ 교육봉사 활동지

대전시 소재 “대전봉산초등학교”

/ 교육봉사 프로그램명

대전시교육청 주관
다(多)사랑 대학생 멘토링제

어쩌다가 대전에서? /봉사활동 참여 계기

교육봉사활동을 선택하기에 앞서 일정과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기왕 하는 활동이라면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기를
바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해왔지만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택한 것이 대전시교육청
주관 <다(多)사랑 대학생 멘토링>이었습니다. <다(多)사랑 대학생
멘토링>은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은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버스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가웠지만 유독 예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사랑 대학생 멘토링 활동 그리고 봉산초등학교 (2)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충전 중 . . .

제가 배정받은 대전시의 **봉산초등학교**는 본가에서도, 학교에서도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3학년 2학기 교육실습 활동을 마친 터라 이른 기상 시간에도 익숙하지만, 그때의 제게 6시 기상은 상당한 고역이었습니다. **평소 방학이었던라면 녹장을 부리다 9시쯤 침대 밖으로 나왔을 것을 세 시간이나 앞당겨야 한다니.** 하지만 교육봉사 면접 때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성실성**이었기 때문에, 기상 시간에는 특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멘토링은 전부 중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진학 멘토링 위주였습니다. **과외를 빼면 초등학생을 접할 기회가 현저히 적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의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점 역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의 관심사와 눈높이를 제가 잘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의 나잇대도 다양했습니다. 1학년 둘, 2학년 한 명, 3학년 한 명, 6학년 한 명.



한 아이가 행거 준 간식.
너는 안 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많이 먹었다고,
선생님 드시라고 집에서 행거왔다고 합니다.
그 마음씨가 순수하고 예뻐서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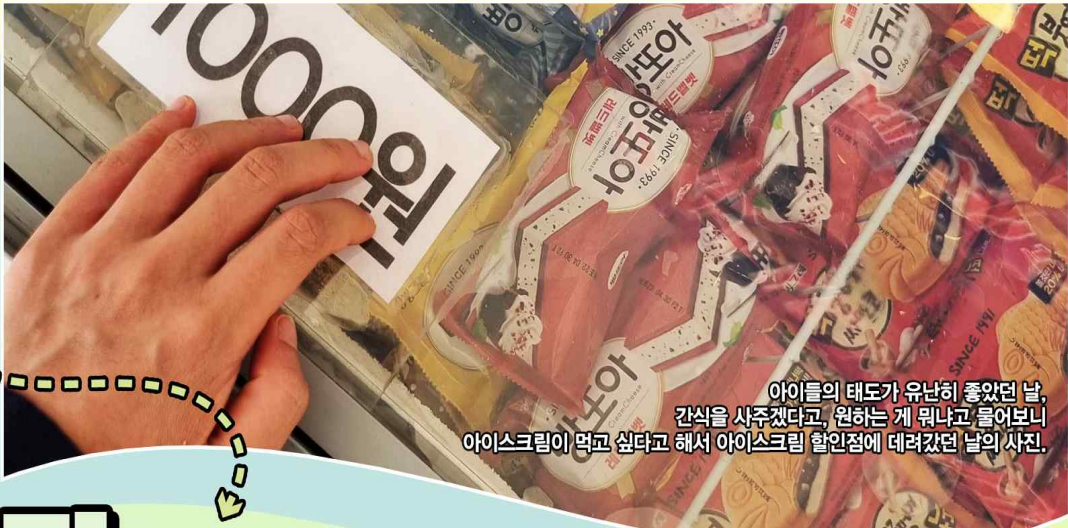
다사랑 대학생 멘토링 활동 그리고 봉산초등학교 (3)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충전 중 . . .

게다가 제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학창 시절
내내 접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역시 제가 겁먹는
데에 한 몫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무언가 다를
거라는 편견을 은연중에 가졌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은
제가 한때 그랬고 제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포켓몬 게임을
좋아하고 책보다는 자전거 타고 길을 따라
페달을 밟는 것에 더 흥미가 있는 그저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한글을 지도하고, 사칙연산을
가르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주변에 없어서였을까요? **혹은 제가**
너무 앞서갔던 것일까요? 분명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점검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유난히 좋았던 날,
간식을 사주겠다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데려갔던 날의 사진.

다사랑 대학생 멘토링 활동 그리고 봉산초등학교 (4)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충전 중 . . .

제가 10을 가르치기를 기대하고 간 날이면 10은 커녕 3 정도밖에 가르치고 오지 못하는 나날이 지속되자, 저는 제가 가진 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해도 보았고, 제 패착이 무엇이었을지를 치열하게 고찰해도 보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제법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그리고 그들의 보폭에 맞추지 못하고, 저의 입장에서, 제가 자란 환경을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창 시절 상위권이었던 아이들로만 빼곡하게 구성된 환경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제 주변의 친구들은 기초 학력 부진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과감하게 각 학년별 교과서를 덮고, 받아쓰기와 구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한 달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학업의 기틀이 될 기본적인 것들에서라도 도움을 주고 가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 중 정마철이 시작되었고 또 끝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지런하게 출석해준 친구들이 고마웠던 계절입니다.

다사랑 대학생 멘토링 활동 그리고 봉산초등학교 (5)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충전 중 . . .

초반에 저를 힘들게 했던 또다른 부분은 아이들이 5분 이상 잘 집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명이 있으니 한 친구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돌아서자마자 다른 친구가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거듭되었습니다. 이 점 역시 관점을 바꾸니 해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일 뿐입니다. 성인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게임에서는 일종의 반복적인 퀘스트 이후 보상을 지급합니다.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고 나면 10분의 휴식 시간을 준다거나, 5분간 휴대폰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식이었습니다. 내내 연성을 높여가며 수업을 진행했다가는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더욱 잃으리라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이후로 전보다 잘 따라와주었고 내주는 과제에도 전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나 출근 길에 사왔던 장난감. 사소한 것들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별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넋지(nudge)일 수도 있습니다.

다사랑 대학생 멘토링 활동 그리고 봉산초등학교 (6)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충전 완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자, 그간의 시행착오가 못내 아쉬워졌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련한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행동경제학자 탈러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선스타인은 <넋지>라는 책에서 “**넋지 효과**”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넋지는 영어로 ‘**팔꿈치로 슬쩍 째러 주위를 환기하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간단한 간섭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이번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저는 아이들의 인생에 **확실하지만 소소한 ‘넋지’**를 주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타파했음은 물론이고, 제 욕심이 앞선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기획한 수업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올해 하반기 진행한 교육실습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의 보폭으로 갈게

교/육/봉/사/활/동/을/마/치/며

가수 아이유의 노래 〈unlucky〉의 가사 중 '난 나의 보폭으로 갈게'라는 부분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보폭의 문제구나. 아이들과 보폭을 맞추는 필요가 있겠구나. 사실 각자의 삶에서라면 각자의 속도와 보폭을 타인에게 구애받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유가 가사에서 의도한 것도 이러한 의미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내가 평생 쌓아올린 나만의 견고한 걸쭉질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의 방식과 배경을 인정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때로는 무릎을 굽혀가고 보폭을 좁혀가며, 지근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소소하고 확실한 '넋지'를 줄 수 있는 겸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사이자, 진정한 멘토입니다. 멘토링 활동 경험이 많다고 자부해온 저였지만, 우습게도 이렇게 이번 다사랑 교육봉사 활동에 와서야 진정한 멘토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된 후 제가 아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넘어져도 괜찮아.
선생님이 너희의 보폭으로 갈게!”**



봉산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지막 날에 찍은 사진.

<우수>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밸런싱아트 교육봉사활동 수기

이 화 룬
초등교육과



PART 01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서 '밸런싱 아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이때 처음 밸런싱 아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밸런싱 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 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밸런싱 아트란?

어떤 사물의 균형점을 찾는 행위로 일종의 퍼포먼스 아트



변남석 작가님의 밸런싱 아트

PART 02

밸런싱 아트를 처음 접했는데 학생들에게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어렵지 않았나요?

교육봉사 가기 전, 변남석 작가님께 OT를 듣는 시간에 이를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밸런싱 아트를 위해 만들어진 교구를 사용했는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분명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밸런싱 아트가 보기에는 어려워보이지만 집중해서 임한다면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기에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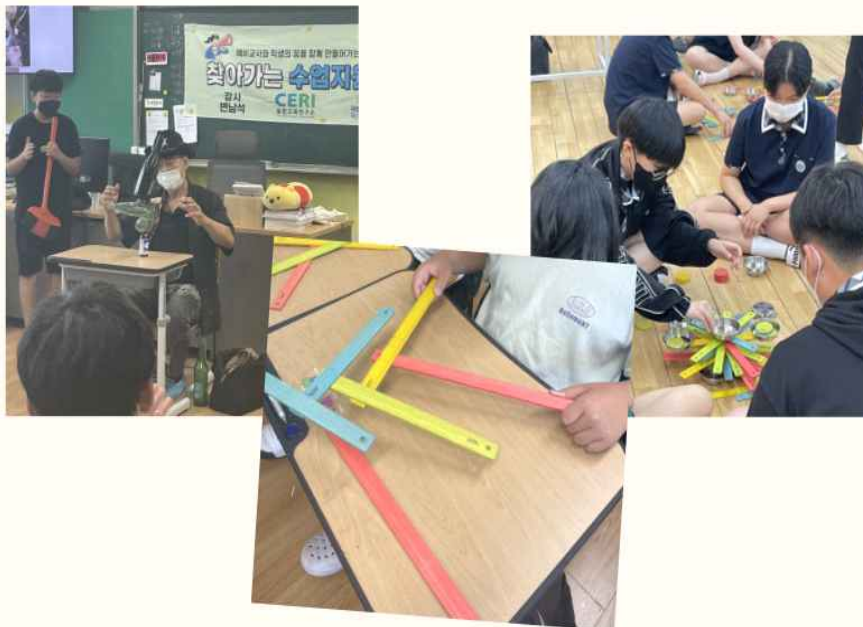
균형잡기 교구로 체험하기



PART 03

수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먼저, 변남석 강사님의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밸런싱 아트를 직접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준비된 균형잡기 교구를 나눠주면서 체험활동을 합니다. 교구로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교육봉사자들끼리 나눠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 단계별로 하는 법을 알려주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주며 진행되었습니다. 개별로 밸런싱 아트를 체험해보고 나서는 모듈별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때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PART 04

학생들의 반응을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밸런싱 아트 사진을 보고는 다들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작가님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꼭 던졌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자기들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구로 직접 해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자 다양한 균형잡기를 직접 해보면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1단계는 성공했으니 이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전하며 성공시키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PART 05

교육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이라 수업 경험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 됐는데 다른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했기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는데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해내는 학생을 보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너도나도 밸런싱 아트에 집중하여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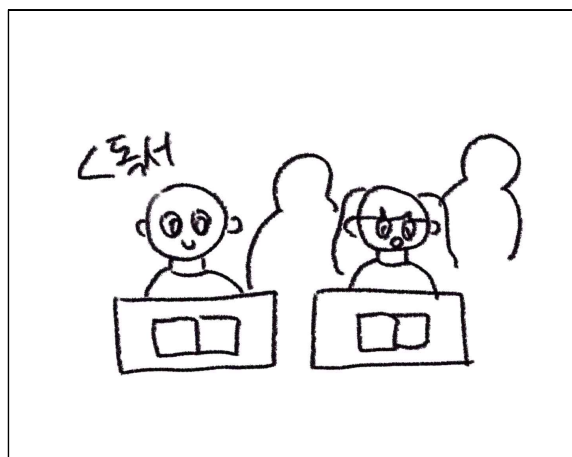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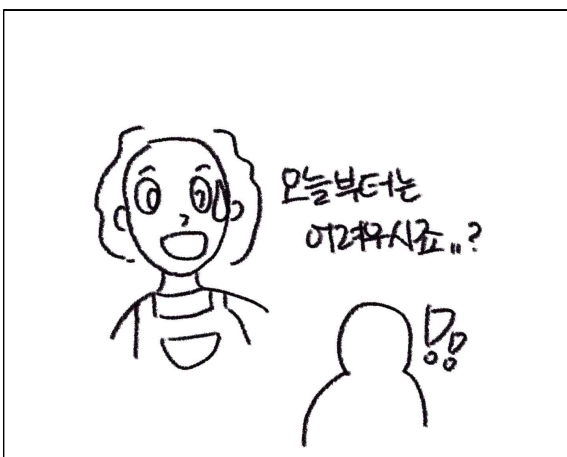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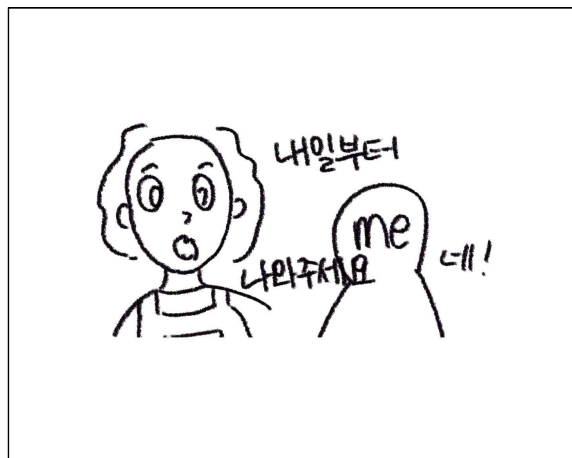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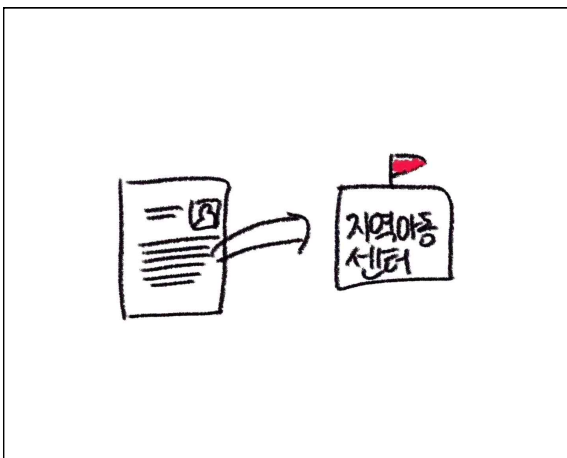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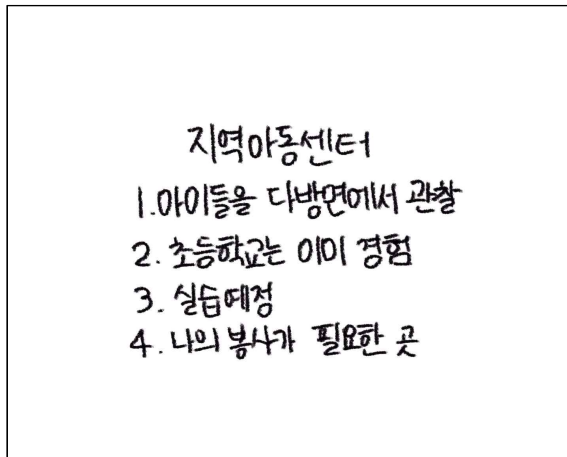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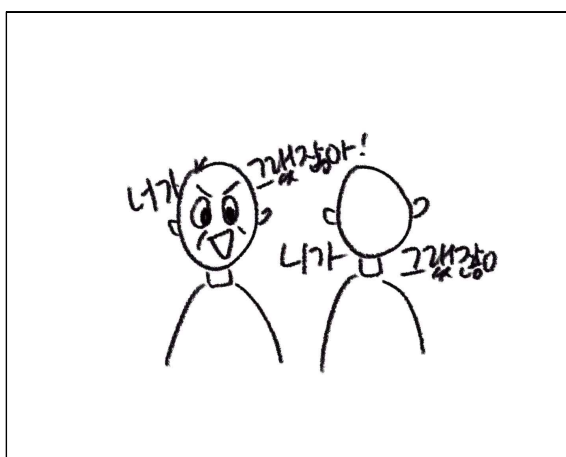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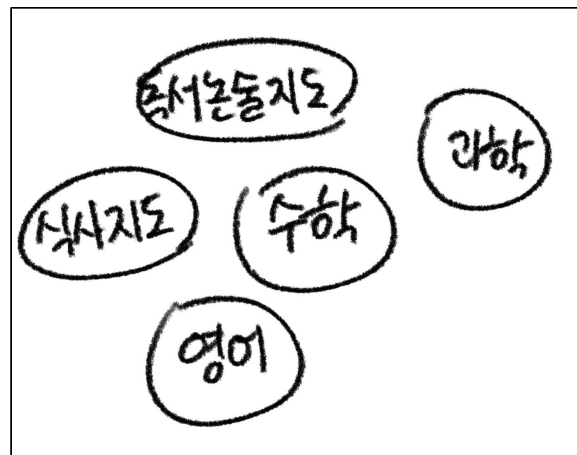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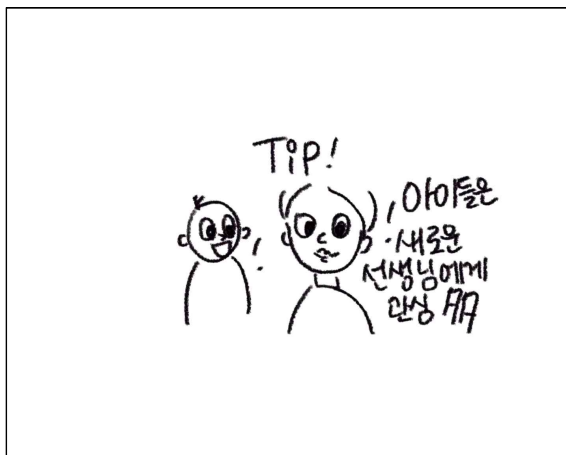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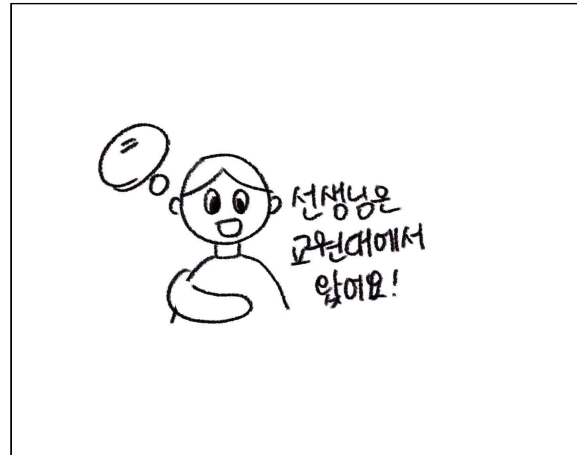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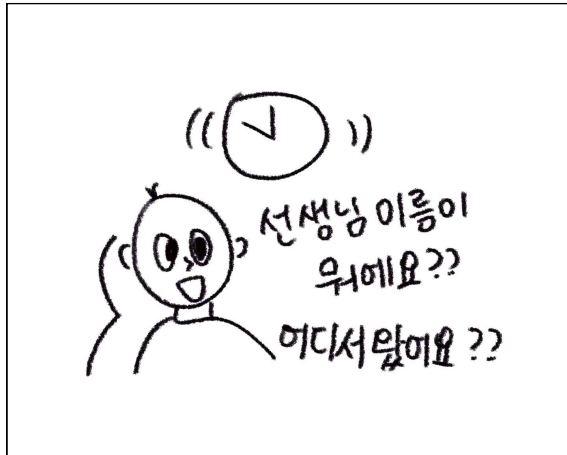
draw my 교육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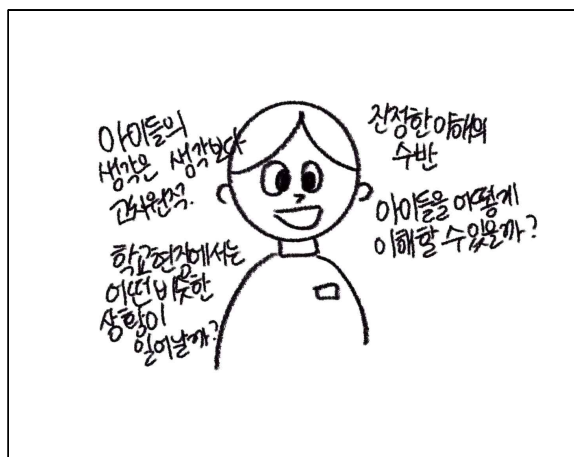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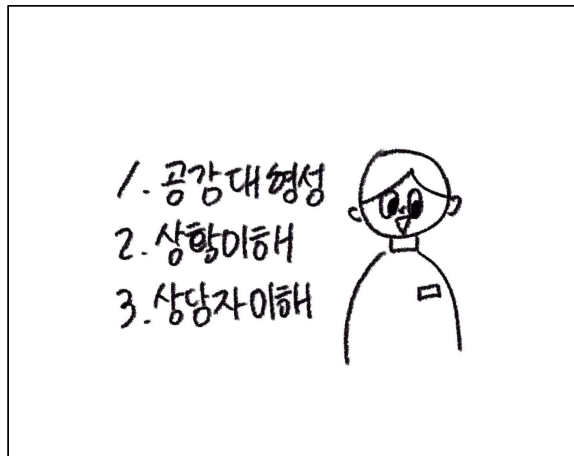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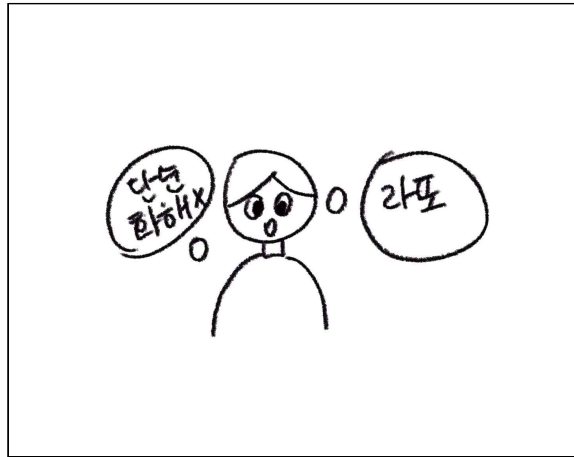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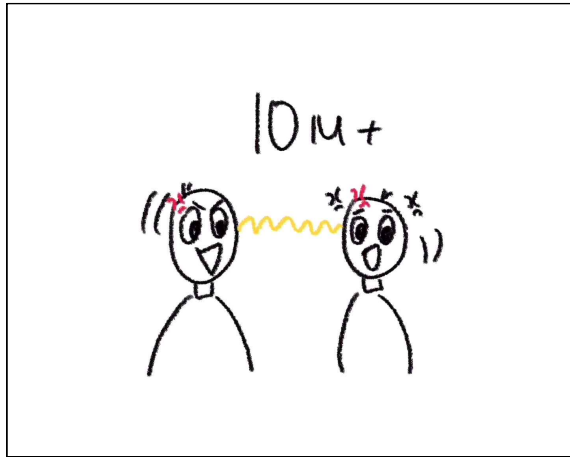
양 민 호
가정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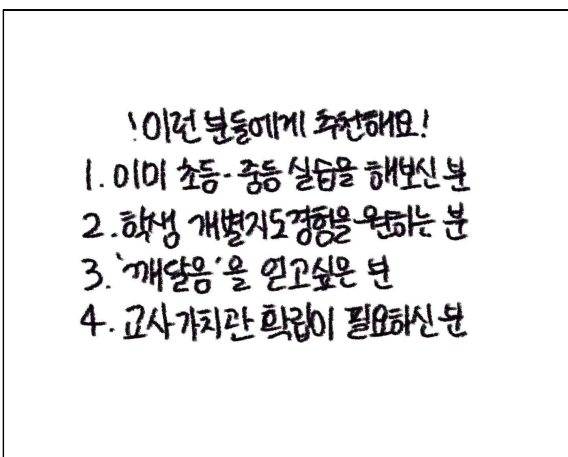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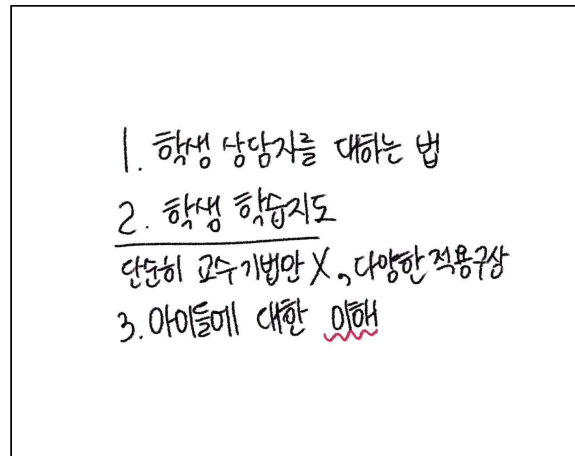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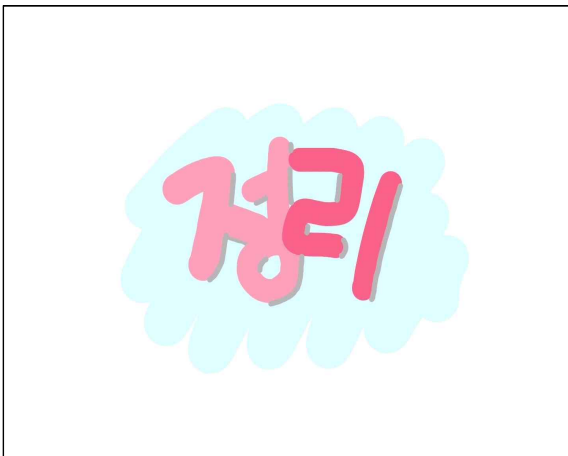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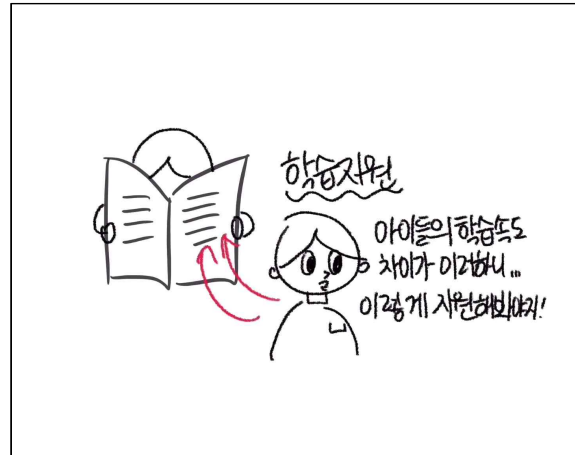
< 영상 링크 >











<우수>

나의 교육봉사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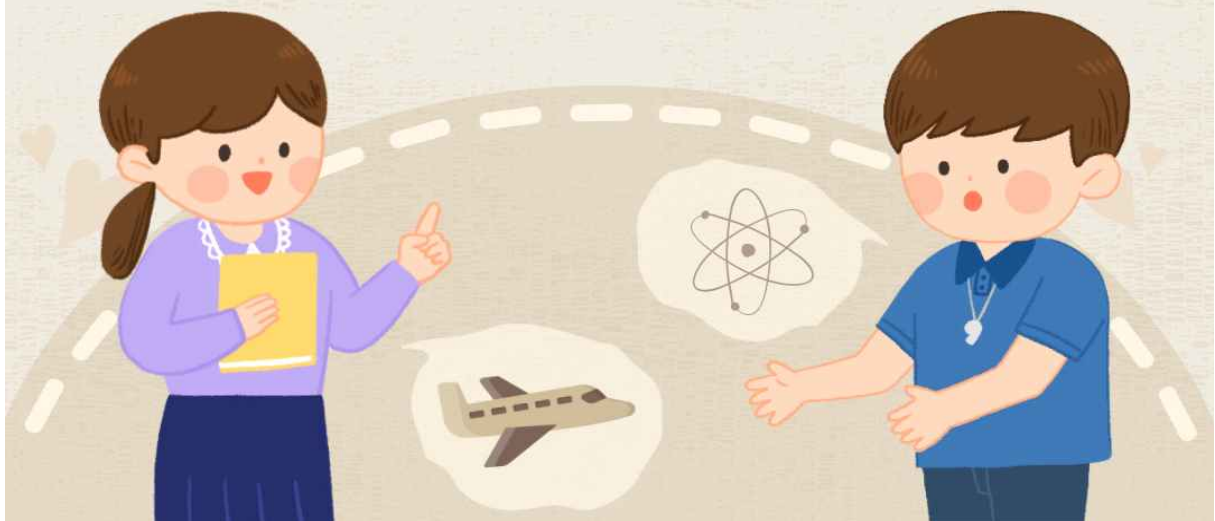
박 시 은
물리교육과

교육봉사수기공모

함께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나의 교육봉사 일기

: 아이들과 함께하며 서로가 **배움의 시간**이 되다 :



자기소개

공평하고 공정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재학중인
22학번 '박시은' 입니다



TMI

취미 | 맛있는거 먹기 · 여행떠나기

MBTI | ENFJ

SNS | @Sci_balagi09

열정넘치는 20살

교육봉사

2022년

[융합교육연구소]와 함께한 교육봉사

국립대학육성사업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 주교사가 PPT와 함께 앞에서 수업을 하는 모습 >

교육봉사



국립대학육성사업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제가 함께한 프로그램은

[우주항공 키네틱아트]



수업 진행과정 소개

항공기의 기본개념과
비행기의 종류 등

교실에서
간단한 개념 수업을
진행한 뒤,



교육봉사



[우주항공 키네틱아트]

자신만의 비행기 만들기 체험



마지막으로 드론 조종체험까지



보조교사 활동



보조교사는,
자신만의 비행기 만들기와 드론 조종체험에서



제작 방법이 다양한
비행기 제작 키트



아이들이 비행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돕고

7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미니드론 체험!



드론 조종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느낀 점



Q.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내가 직접 모듬의 선생님이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의 뿌듯함이 생각난다.
다양한 아이들을 보면서, 가르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Q. 교육봉사 활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이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자
예비교사들이 현장을 체험하기 위한 봉사 프로그램 :)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 교육봉사활동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



교육봉사활동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중고등 교사가 되고 싶은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다면?

학교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교육봉사시간을 채우기 힘들다면?!

함께 교육봉사 하자!

<장려>

같은 장소, 다른 경험

강 하 빈
영어교육과

나는 2022년 하계 논산여자중학교 교육현장활동(이하, 교활)을 다녀왔다. 나는 2022년 동계 논산여자중학교 교육현장활동을 다녀왔다. 두 개 문자에서 다른 것은 딱 하나이다. 바로 하계와 동계. 나는 2022년 교육현장활동을 같은 장소로 갔다. 다른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학교를 간 이유로는 하계 교활에서의 기억이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먼저 하계 교활에서의 경험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하계 논산여중 교활에서는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참여하는 캠프 등의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실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이번 교활을 통해 시간표 배치, 학생들의 등교 시간 결정, 학생들에게 이로운 수업 결정, 체험 활동 결정 등 다양한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해당 캠프를 운영해야 할 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시간표를 배치하는 것도 단순히 랜덤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활동이 많은 수업을 위주로 하여 최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으로 배치하는 것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졸음이 몰려올 시간이기때 이론 수업이 많은 것보다 활동형, 학생 중심형 수업 비중이 많은 프로그램 등을 선정하였다. 그 후 체험 활동에 대해서는 '총괄단 프로젝트'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하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 학생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 이유

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그들에게 학업적인 개념 등을 알려주는 것도 목표이지만 해당 캠프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좋은 기억을 줌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이기에 해당 프로젝트를 그러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 구상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학생일 때는 그저 선생님들이 제공해주신 일정대로 따라 움직이고 경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저 교육봉사를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수업만을 준비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해당 캠프를 구성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 지 등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 같다.

나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캠프를 구성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최하는 역할, 즉 내가 총괄단으로 갔기 때문이다. 해당 교황에는 구성원이 총괄단, 프로그램선생님, 학생으로 구성된다. 총괄단이란 전체적인 캠프 계획, 진행을 맡은 사람들이고 프로그램 선생님들이란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옆에서 수업을 듣는 역할이다. 총괄단에는 전체총괄, 사무총괄, 분반총괄의 역할이 있는데 내가 하계에 맡았던 역할은 분반총괄이었다. 분반총괄은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담임선생님 역할이다. 하나의 반을 맡아 학생들의 출결, 해당 반의 분위기 조성, 일정 공지 등을 맡은 역할이다. 나는 항상 이번 교황의 구성원의 역할과 비슷한 프로그램선생님, 즉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교육봉사를 갔던 것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반을 총괄하는 역할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사실 걱정도 많이 했다. 내가 해보지 않았던 업무들이 많이 있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을 풀어야하는 역할을 해야 했기에, 그리고 분반총괄의 에너지와 능력에 따라 해당 반의 분위기 또한 결정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진로에 대한 확고함'이다.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였다. 그 이유로는 내가 흔히들 말하는 요즘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 후배가 있어도 고등학생이었고, 나는 내 친동생이나 주변에 그 나이대의 동생들이 없었기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지 혹은 유행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

다. 그래서 사실 정말 걱정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만 할 수 없었기에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그 중에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밝은 인사’이다.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만히 있기 보다는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혹은 복도에서 만났을 때 밝게 인사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학생이었을 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밝게 인사해주시는 선생님들께 호감을 느꼈고 그런 선생님들과 금방 친해졌기 때문이다. 인사를 하다 보니 학생들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 쫓고 내가 다가가도 학생들이 어색해하지 않고 잘 받아주면서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유행하는 지, 어떤 것을 많이 좋아하는 지 등을 들으며 나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고 해당 주제를 하여 대화를 하며 조금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학생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정을 많이 쌓으려고 할 때 즈음, 캠프가 끝나는 시기가 다가왔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울었고, 나에게 가지 말라는 애기도 하였다. 그리고 편지에도 정말 너무 고마운 말들이 많이 적혀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선생님은 선생님 안 하시면 안 된다. 무조건 선생님 하셔야 한다.’ 라는 말이다. 사실 나는 내가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꿈꿔왔고 그렇기에 교원대에 진학하였지만 가끔씩은 내가 정말 선생님을 해도 괜찮은 사람일까?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꼬리를 물어 ‘내가 선생님 말고 다른 진로를 찾아가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저런 말을 써주다니 정말 나에게 너무 과분한 말이었고 나의 진로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꿈 꿀 수 있게 해준 말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사실 나는 캠프 마지막 날 내가 저런 말을 들을 만큼 학생들에게 잘 해주었는지 잘은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내가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미안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저런 말을 써줄 정도였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은 학생들에게 다가왔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하다’ 라는 감정 이상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기에 나는 내가 학생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나는 학생들과 함께 있는 선생님을 해야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정말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그 경험들이 너무 좋

았기에 동계에도 똑같은 학교로 교활을 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동계 교활에서의 경험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동계 교활은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사실 나의 경험을 얼마나 정리하여 잘 쓸 수 있을 지 잘은 모르겠지만 교육봉사수기인 만큼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 보려고 한다. 먼저 내가 이번 동계 교활을 하게 때와 똑같은 학교를 간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계 때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었다. 하계 때의 학생들이 정말 예뻐던 것도 한 몫 했던 거 같다. 이번에도 나의 역할은 분반총괄이었다. 그렇기에 내가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학생들을 대할 수 있었던 거 같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여유가 생긴 만큼 기대도 덜했던 거 같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여유가 생긴다는 게 왜 때문에 기대감을 줄인 것이냐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자면 같은 학교로 간다는 점, 같은 역할로 간다는 점 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고 몇 몇 학생들은 내가 하계 때 봤다는 점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고, 같은 장소여도 충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교활에서 배운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해라 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다루는 법’, ‘어떤 것이든 차이가 있는 경험이라는 것’ 정도가 될 거 같다.

먼저 학생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번 분반의 경우,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 모두가 한 분반에 있는 체제였다. 하계의 경우, 1학년 학생들만 모여 있었다. 그렇다보니 1차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사실 하계와는 다른 고민이었지만 이번에도 걱정을 많이 했다. 괜히 2학년 학생들의 기에 눌러서 1학년 학생들이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할까봐, 혹은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까봐 등 학년에 따른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 사실 나의 경험이 조금은 영향을 미친 거 같다. 나도 해당 학생들과 같이 여자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선배들이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눈치를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금은 쫓았던 기억도 있고 행동 등을 조심스럽게 했던 거 같다.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분반은 그런 분위기 또한 보이지 않았고 2학년들이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그래도 항상 서로간의 분위기가 어떤 지 등을 파악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것이기에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아무리 같은 학교로 교활을 온 것이어도 학생들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는 정말 많이 다르다.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해서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나이 대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같은 학교를 다녀도, 같은 학년이어도 정말 많이 다르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분반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내가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을 경험을 하다 보니 정말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학생들은 개개인별로 정말 많이 다르다고. 누군가는 또 물을 수도 있다. ‘10대 여중생들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냐고.’ 나는 정말 확고히 답할 수 있다. ‘정말 많이 다르다고.’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10대 여중생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틀이 있는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사진 포즈, 패션 스타일, 언어 습관, 아이돌 등 공통된 점들이 있기는 하나,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 성격도 천차만별이기에 학생들을 다루는 것 또한 정말 많이 다르다. 조금 소극적인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서 말도 많이 걸어주고 조금 더 관심을 많이 주어야한다. 그런 반면에 적극적인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다가가는 것에 대한 비중은 조금 줄이고 해당 에너지는 소극적인 친구들에게 쓸 수밖에 없는 거 같다. 또한 성격에 따른 관심사 등도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 주제도 많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내가 느낀 점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학생들을 대하는 법은 정해져있지 않고 천차만별이라는 것’ 이다. 내가 느낀 것은 이것 외에도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이다.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하는 것’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조금 더 가깝다면 ‘지도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의 대화나 행동에 반응해야하는가’ 정도로 차이를 둘 수 있겠다. 내가 해당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몇 몇 학생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조금 생각나는 일화를 적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베이킹 수업을 하는 중에 주교사 선생님의 실수로 학생의 팬케이크가 조금 망가지는 상황이 있었다. 해당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생이 팬케이크를 뒤집는 것이 조금 두려워 선생님께 부탁을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반죽이 덜 익어있는 상태여서 뒤집어주다가 모양이 조금 망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대뜸 ‘아 ㅇ

○쌤 때문에 다 망했어. 쌤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팬케이크가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도 이해가 가고, 해당 학생이 속해있던 조의 속도가 조금은 느렸던 지라 마음이 급했던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리 본인의 감정이 속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특히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학생을 위로해주며 다시 해보자고 다독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 ○○선생님 때문에 망쳐서 하기 싫어졌어요. 쌤이 다 물어내세요.’ 등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해당 선생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많이 하셨다. 그런데도 해당 학생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그 조의 분위기가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주변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두고만 보실 수는 없으셨는지 ‘○○쌤이 도와주시다 그런 거니까 다시 해볼까?’ 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고 나뿐만 아니라 해당 조의 친구들도 ‘다른 반죽도 많이 남아있으니 다시 해보자.’ 라는 등의 말로 분위기를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덜거렸고 ‘○○선생님 인기 많네요. 다른 선생님들이 설드도 쳐주고.’ 등의 발언과 주변 친구들한테까지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정말 난감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버리면 수업 분위기는 정말 얼음장이 될 거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하여 ‘ㄹㄹ아, 지금 ㄹㄹ이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지? 이제 그만하고 다시 해보자.’ 라는 말 정도로 끝내며 해당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다. 사실 지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아도 딱히 뽀족한 수가 생각이 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학생은 조금 더 위로를 바랐던 것일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등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학생이 쌤한테 장난을 친건데 요즘 흔히들 말하는 꼰대처럼 내가 너무 과민반응을 한 것인가? 등의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항상 학교를 다닐 때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혼내면 본인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던 게 이런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해당 일화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즉 같은 조에 속해있는 선생님들께 장난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물론 학생들도 어색함을 깨기 위해, 그리고 해당 선생님이 좋아서 장난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나도 10대일 때 그랬고. 그렇지만 한 두 번씩 선을 넘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

물론 다행히 해당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의 장난을 받아주시기도 했고 서로 친해서 그런 거 같기는 했으나, 담임선생님 역할로 있는 나에게는 이것 또한 정말 큰 고민이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장난으로 보고 학생들을 이해해야하는 지가 잘 가늠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민반응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또 한 번 짚어줘야 하는 부분 같기도 하고. 사실 정말 어려웠다. 내가 아무리 분반총괄의 역할을 여러 번 한 사람이어도 아직 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그냥 친구들끼리 평소에 하는 언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 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교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참 쉽지 않았다. 말을 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말 많은데 그 만큼 어려웠고 고심해야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름 때 봤던 아이들과도 성격이나 느낌 등도 너무 달라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 지 정말 고민이 많았다.

사실 내가 '학생들을 대하는/지도해야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해지만 정정해서 말하자면 '학생들을 다루는 법/지도해야하는 법에 대한 고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왔다고 말해야겠다. 단순히 내가 10대일 때 겪었던 방법,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방법 등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상황에 따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내가 교사가 되기 전에 정말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맞춰서 고민을 해야만 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꼭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다 보니, 이번 캠프에서는 어려운 점만 있었다라고 기술한 것 같은데 어려웠던 만큼 학생들이 예쁜 행동도 많이 했기에 나 또한 해당 교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했던 생각, 바로 같은 학교이기에 기대감이 적었다는 점. 정말 나의 오산이었다. 같은 학교여도 다른 학생들(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배운 점도 정말 다 다르다는 점 등을 통해서 내가 이번 논산여중의 두 번의 교활을 통해 깨달은 점을 총정리하자면 같은 a여도 다른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같은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b, c 등의 다른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배우는 점도 풍부해진다는 점 또한 배웠기에 내가 계속해서 기회가 된다면 교사가 되기 전에 최대한 많

은 교육봉사를 다니며 다른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옆에서 교육봉사 등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져가기를 바란다.

<장려>

교육봉사는 고민하는 나를 낳는다.

김 시 은
초등교육과

겨울 방학에 방문했던 만승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학생들 및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설레면서도 어색하게 다가왔었다. 실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을 뿐더러 3박 4일 동안 매일매일 학생들 옆에서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부담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었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었다. 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수업을 관찰하면서 배울 점을 얻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육 등 여러 많은 생각을 했던 기간이다. 많은 상황들이 주어졌고 그 상황에서 갖가지 생각의 가치를 늘어놓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생각을 풀어보고자 한다.

#1. 어른스러움

한 학급에 10명 남짓하게 두 분반을 대상으로 봉사가 진행되었다. 나는 2분반에 속했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2분반 학급에서 보냈다. 1분반 선생님들과 식사를 하던 때에는 각 분반의 아이들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하윤이라는 아이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많은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그 학생을 '어른스럽다.'라고 얘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클레이를 사용하는 활동에서 모둠 친구가 더 많은 재료를 원하자 자신의 클레이를 떼어내 양보해주고, 체

험 활동을 할 때 항상 마지막 순서는 하윤이가 자청한다는 것이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2학년과 3학년이 섞여 있는 가운데 3학년으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하윤이가 모범을 보이는구나 싶었다. 나이 때문만이 아니고 학생 자체가 배려심이 넘치고 성숙한 편이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쳤다.

그리고 복도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하윤이를 발견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달려가다가 하윤이의 팔을 세게 치며 지나갔고 하윤이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상황을 중재하러 가야겠다 싶어 그쪽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윤이의 행동이 빨랐다. 그냥 스쳐 지나가버린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나한테 사과해줄래?”라고 차분하게 말을 내밀었다. 남자아이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하윤이는, “방금 네가 치고 지나가서 아팠어. 사과해주라.”라고 말했다.

하윤이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나와 내 친구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인물을 바꿔보았다. ‘야!’ 혹은 ‘아이 C’와 같은 말이 반사적으로 뱉어지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어른스러움이란 무엇일까? 하윤이의 이런 모습에 모두는 어른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었다.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어른스러움’은 ‘인내심’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화를 다스리고 참을 줄 안다는 것이다. 클레이 재료를 더 쓰고 싶은 마음을 참고, 빨리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날 아프게 한 친구에게 화내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 하윤이는 그 누구보다 인내심이 깊은 아이였다. ‘~스럽다’는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그렇다면 어른스럽다는 말은 어른의 성질이 있다는 것인데... 이 표현이 꽤나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다. 어른, 즉 다 자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내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라고 해서 인내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연스레 어른스럽다는 말을 인내심 혹은 배려의 깊이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 ‘어른’을 검색하면 이에 대한 반의어로 ‘아이’가 나온다. 즉, 우리는 ‘아이’인 하윤이에게 상반된 의미의 ‘어른’스럽다는 칭찬을 해온 것이다. 비록 어른의 의미를 넓혀보자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아 이 ‘어른스럽다.’는 표현이 곱씹어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른이 아이보다 더 성숙하고 높은 인격을 지녔다는 우월함을 뽐내려는 말로도 들린다. 애초에, ‘~스럽다’라는 표

현은 칭찬이 아닌 것도 같다. ‘~이다.’도 아니고 ‘~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니. 연예계에서 신인이 뜰 때마다 ‘제2의 아이유’, ‘제2의 빅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제2의 어른’이라는 뜻이 느껴진다. 또한, 그 칭찬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 ‘어른스럽다.’라는 말보다 ‘인내심이 강하다.’ 혹은 ‘배려심이 깊다.’는 말이 더 와 닿지 않을까?

#2. 도현이와 도마뱀

학급 내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지정석이 있다. 앉은 자리에 따라 모둠원과 짝꿍이 정해지는데, 짝꿍은 선생님 한 명과 학생 한 명이 짝을 이룬다. 옆 자리의 지윤이가 짝꿍이었고 앞에 앉은 도현이는 우리 모둠 학생이었다. 본인의 수업이 아닐 때 선생님들의 역할은 다른 선생님의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둠 학생들을 돕는 것이었다. 교육 현장 활동의 첫날, 처음 학생들을 맞을 때가 가장 떨리고 설레는 순간이었다.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을 기다리다 지윤이가 등교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현이가 왔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랬듯이 반갑게 인사하며 이름을 물었으나 도현이는 한 마디도 내게 돌려주지 않았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 꼭 쥐고 있는 조그만 가방, 아슬아슬하게 눈을 가리지 않은 깊은 앞머리. 그것이 도현이의 첫인상이었다.

첫날부터 난관이 많았다. 클레이를 만드는 수업부터 분리수거 퀴즈를 맞히는 수업까지 학생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는데 도현이는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

“도현아, 우리 클레이로 크리스마스트리 꾸밀 건데 어떤 색깔로 하고 싶어?”

“...”

“파란색? 빨간색?”

“...”

이렇게 10번쯤 물어보면 손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내비치곤 했다. 개별 활동은 옆에서 차근차근 의사를 밝혀줄 때까지 기다리곤 했으나, 문제는 모둠활동에서였다. 우리 모둠의 이름을 정하는 활동, 모둠의 구호를 정하는 활동, 문제

를 보고 모둠원끼리 답을 상의해보는 활동. 모든 것이 학생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활동이었다. 그러나 역시나 도현이는 관심도 없었고 같은 모둠원인 지윤이는 친구와 얘기하며 활동하질 못하니 점차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수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선생님인 우리와 지윤이 셋이서 의견을 공유하고 마지막에 도현이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모둠의 구호를 정할 때, ‘아자아자’를 넣자는 지윤이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도현이에게 ‘아자아자 파이팅!’이라는 구호가 어떤지 물어보면 조심스레 고개를 한 번 숙였다 들어올린다. 그러면 동의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둠의 구호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감정을 느꼈는데, 답답할 때도 있었고 또 다 같이 참여하면 재밌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수업을 준비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미안함의 감정이 섞였다.

둘째 날 일정을 소화하던 중, 쉬는 시간에 문득 도현이를 보았다.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의 도마뱀 장난감을 쿡쿡 눌러보기도 하고, 칠판에 던져보기도 하고-점성으로 인해 일정 거리에서 던지면 칠판에 도마뱀 장난감이 찰! 소리를 내며 달라붙는다-혼자 재미있게 노는 도현이의 모습이 왠지 신나보였다. 그런 도현이에게 다가가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때는 장난감을 던지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대해 물어보았다.

“(장난감을 가리키며) 도현아, 애는 뭐야?”

“.....마뱀”

“응? 뱀?”

“(도리도리).....도마뱀”

“도마뱀~!”

“(끄덕끄덕)”

도현이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던 순간이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도마뱀 장난감이 크게, 자세하게 보였다. 얼마나 만지작거렸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겉면이 닳아있던 그 도마뱀. 수업 도중에 계속 도마뱀 인형을 꼭 쥐고 눈을 못 떼고 있기에 도마뱀 인형 집어넣고 수업에 집중하자며 나무랐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처음 도현이를 봤을 때 눈에 띄었던 가방 속

에는 그러한 장난감이 4~5개 정도가 들어있었다. 인형에 대해서 문자 맑은 눈으로 조근조근 듣성듣성한 말로 도마뱀 친구들에 대해 말해주었다.

몇 주 전에 우리 학교 미술교육과에서 과제전이 열렸었다. 친구의 작품을 구경하러 방문했던 터라 잠깐만 보다 가려던 중에 한 작품에 시선이 꽂혔다. 작품의 제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겐 너무 다정한 너'라는 문구였던 것 같다. 작품 속에는 한 여자아이와 곰 인형이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슬플 때 곰 인형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곰 인형 혼자 남아있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을 보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어릴 적 친구가 떠올랐었다. 기억 속 마지막 모습에는 하얀 솜이 새까맣게 되어버린 물범 인형이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상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혼났을 때, 친구와 다툰을 때 꼭 끌어안고 펑펑 울기도 했다. 눈물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와도 아무 말 않고 곁에 있던 인형이 그때는 많은 위로가 되었다.

도현이에게 그 도마뱀 장난감은 작품 속 곰 인형, 내 어릴 적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지 않을까?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소중한 친구가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은 경계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어른의 입장인 나의 생각이었다. 4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도현이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이해한 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체육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노력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대답의 빈도수가 조금 늘었다. 사실 4일이라는 시간 동안 180도 변화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언젠가는 도현이가 자신의 장난감-눈이 지워져있었다-에 눈을 다시 그려달라는 부탁도 했다. 소중한 물건을 맡긴다는 면에서 조금씩 아이의 마음을 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학생을 알고,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의 입장이 직접 되어보는 것은 그 학생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3. 자신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이 주제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었다. 웬만한 학생들은 다 미술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업 내용은 간단히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나만의 감정 캐릭터를 만들어 그리는 것이었다. 1분반 수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 2분반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잘 따라와 주리라 믿었다.

수업 진행 순서에 따라 주교사인 나와 동료교사인 내 친구가 미리 그려준 감정 캐릭터의 예시 그림을 보여주었다. 친구가 그렸던 건 행복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복이’였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공룡 모습의 캐릭터였다. 내가 그렸던 건 ‘흐잉이’로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캐릭터이다. 간단하게 눈물 모양으로 표현했다. 이렇듯 예시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직접 한 가지 감정을 정하고 나만의 감정 캐릭터를 만들어 그리도록 지도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만하게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 속에서 홀로 주저하고 있는 한 학생을 발견했다. 그 아이 앞에는 백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리다만 종이가 몇 장 흩뿌려져 있었다.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 천천히 해보자며, 어떤 캐릭터를 그릴 생각이냐고 물어보았다.

“민성이는 어떤 감정 표현할 거야?”

“행복이요.”

“오, 그러면 어떻게 그려볼까?”

“저거요.”

학생이 가리킨 것은 다름 아닌 예시로 화면에 띄워둔 ‘행복이’의 그림이었다. 책상 위의 쓰다만 종이에 그 캐릭터를 따라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 흔적이 있었다. 자신만의 캐릭터 만들기가 활동 목표인데 선생님의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민성이를 설득해 보았다. 다른 학생들의 진행 상황도 파악하고 활동을 돕느라 바쁜 나를 대신해 옆에 있던 보조교사 분도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민성이와 이야기 해주셨다. 그러나 학생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정말 몇 십 분 남짓 안 남은 수업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사의 캐릭터를 따라 그리되, 조금 변형해서 그리도록 합의를 보았다. 그렇게 학생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분 뒤, 옆에 있던 보조교사의 당황하는 눈빛에 다시 그 학생의 자리로 향했다. 학생은 그림을 대신 그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민성이는 자신이 그리는 그림

에 자신이 없어 보였다.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못생겼어.’, ‘이상해요.’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보조교사와 내가 계속해서 아니라며, 잘 그렸다고 칭찬을 쏟아부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했다. 그래도 이건 정말 양보하기 어렵다. 학생 스스로가 활동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모두 다 대신 그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캐릭터의 큰 틀만 대충 잡아주고 나머지는 학생이 그림을 그렸다. 수업이 끝나고, 민성이는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지는 못하는 듯했으나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그림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무엇이 학생의 자신감을 그렇게까지 낮췄을지 궁금해졌다. 또한 이 자신감을 다시 되찾아줄 방안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4일이라는 기간은 그 의문과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칭찬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좋은 칭찬’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해보았음에도 그림 실력에 대한 학생 자신의 불확실은 그대로였다.

이 에피소드에서 깨달은 것은, 모든 학생들이 미술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활동에 있어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

교육봉사는 고민하는 나를 낳는다. 그 고민 속에서 해답을 찾은 경우도 있고 그대로 고민으로 남은 경우도 있다. 해답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냥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이어갈 뿐이다. 교육봉사 자체에서도 친절하게 답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생각할 만한 경험과 이야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과 이야기, 나의 고민과 생각이 지속되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이 고민들을 잊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많은 하윤이, 도현이, 민성이를 만나게 될 터이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해나가는 자세가 진정한 교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장려>

나의 꿈, 특수교사

이 채 원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20221158 이 채 원

한국교원대학교

나의 꿈, 특수교사



한국교원대학교
특수교육과
20221158
이채원

봉사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특수학급

2022.09.03.화- 1일차



교원대 부설유치원 특수학급에 속해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3명이었다. 현종이와 건영이는 경계성으로, 주로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가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두 아이들은 보지 못했다.

성현이는 자폐성 장애 학생으로, 통합학급보다 특수학급에서 더 오래 시간을 보내는 아이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나 놀이에만 집중을 한다. 놀이를 할때는 같은 색깔끼리 모으고, 숫자순으로 놓는 등 자신만의 규칙이 확실했다. 내가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자폐의 특징들을 성현이를 통해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그런 특징들 말고는 문제행동이 없어서 너무 예쁘고 귀여웠다.

특수교육과에 진학을 했다 하면 '대단하다. 힘들겠다. 왜?'와 같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교육봉사를 오기 전까지 심한 폭력성이 있는 아이들만 생각하고 겁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본 성현이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엽고 학급 분위기도 평화로워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 그동안 의심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 현장을 보고 실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안심도 되고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앞으로의 남은 날들이 기대가 된다.

2022.09.20.- 2일차



오늘은 '좋은 특수교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하루였다.

성현이는 자신만의 규칙과 강박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이다.

물이 닿는 느낌을 굉장히 싫어해서, 바지에 물이 묻으면 어정쩡하게 걷고, 손 씻을 때도 표정에서 참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자라게 하려면 그런 불편함들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일부로 물을 아이에게 묻히기도 하셨다. 성현이는 창문도 완전히 열어줘야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인데, 선생님은 일부러 반만 열어두는 등 아이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정말 별거 아닌, 손을 씻을 때도 감각적으로 불편해하고 꼭 참는 표정을 보니 아이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아팠다. 창문은 완전히 열어야 하고 다른 친구들의 우유갑까지도 제대로 다 닫아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강박이 정말 많았다. 그런 거까지 다 신경을 쓰고 불편해하니 스트레스가 많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특수교사가 되면 성현이와 같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너무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특수교사가 어쩔 수 없이 나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 원래는 아이들에게 마냥 착하고 친절하고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욱 교사는 많이 단단하고 강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2022.09.27.- 3일차



오늘은 성현이의 통합학급에 지원을 갔다.

체육관에 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성현이를 1대1로 계속 따라다녀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계속 나한테 말을 걸고 함께 놀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 다른 아이들에게 괜히 미안했다.

일반교사를 한다면 내가 봐주어야 할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모두에게 관심을 충분히 주지 못 하는게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반응은 해주면서 시선은 계속 성현이에게로 향했다.

성현이 옆으로 내가 가면 다른 아이들이 내쪽으로 와서 성현이는 조용한 곳으로 도망가고의 반복 이었다. 성현이만 봤을때는 강박을 가진 것 외에는 문제행동이 없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확실히 다른 아이들과 있으니까 차이가 크게 보였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노는데 성현이는 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관심이 없다. 혼자 블록 쌓고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엄청 좋아해 주는데 막상 내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주는 성현이만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 괜히 서운했다. 나중에 특수교사가 되어서도 외로운 순간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듬뿍 줘도, 아이는 나에게 관심도 없고 표현도 하지 않으니 외롭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성현이가 우유를 열 때 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그 한마디가 뭐라고 서운한 게 싹 없어지고 너무 행복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마커를 열 때도 성현이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다른 말들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열어주세요'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현이가 내가 가르쳐 준 말을 따라하고 혼자서 '열어주세요'를 몇 번 중얼거렸다. 그 순간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데서 보람을 느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성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놀이를 할 때 아이가 짜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너무 행복해졌다.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는거에 예민해하고 오늘도 손을 씻을 때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예민하고 강박이 심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 나도 모르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 담임교사도 아니고 봉사생일 뿐인데 이런 감정과 생각까지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구나. 무조건 교사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정말 많이 배운 뿌듯한 하루였다.

2022.10.03. - 4일차



오늘은 현종,건영,성현이 세명 모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들었다.

현종이와 건영이는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반응을 잘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주의력이 낮고 자기 할말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성현이는 뭘 해야하는지 관심도 없고, 아예 수업의 흐름을 잡지 못했다.

'나중에 성현이같이 자기가 좋아하는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든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생활 자조기술, 꼭 필요한 개념 등을 공부할 수 있게 좋은 놀이와 교구들을 생각해내는게 중요할 것 같다. 특수교사는 한 학생마다 개개인의 특성과 관심사를 잘 파악하여, 그 아이에 맞추어 수업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내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많이 배워야겠다.



2022.11.15.- 5일차

'장애학생 행동지도' 전공 수업에서 아이들이 놀이 활동같은 재밌는 활동을 하다가 수업으로 넘어갈때, 놀이활동을 더 하려고 떼를 쓰는 등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예측 가능성의 증진' 중재로, 놀이 활동 전에 아이들에게 미리 놀이 활동을 마치는 시간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는 걸 배웠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께서 놀이 활동 전 '몇 분까지 할 거예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어 신기했다.

놀이활동이 끝나고는 레몬청 만드는 활동을 했다.

감각이 예민한 성현이는 비닐장갑을 끼도 레몬과 설탕을 섞을 때 느낌을 굉장히 불편해했다.

오늘 유독 고통스러워하는 수준으로 너무나 싫어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억지로 조금 시키셨는데, 너무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성현이의 표정에서 이 감각이 너무 불편하고 싫다는게 잘 드러났다.

특수교육을 배우고 현장을 경험할수록 확실히 느끼는 한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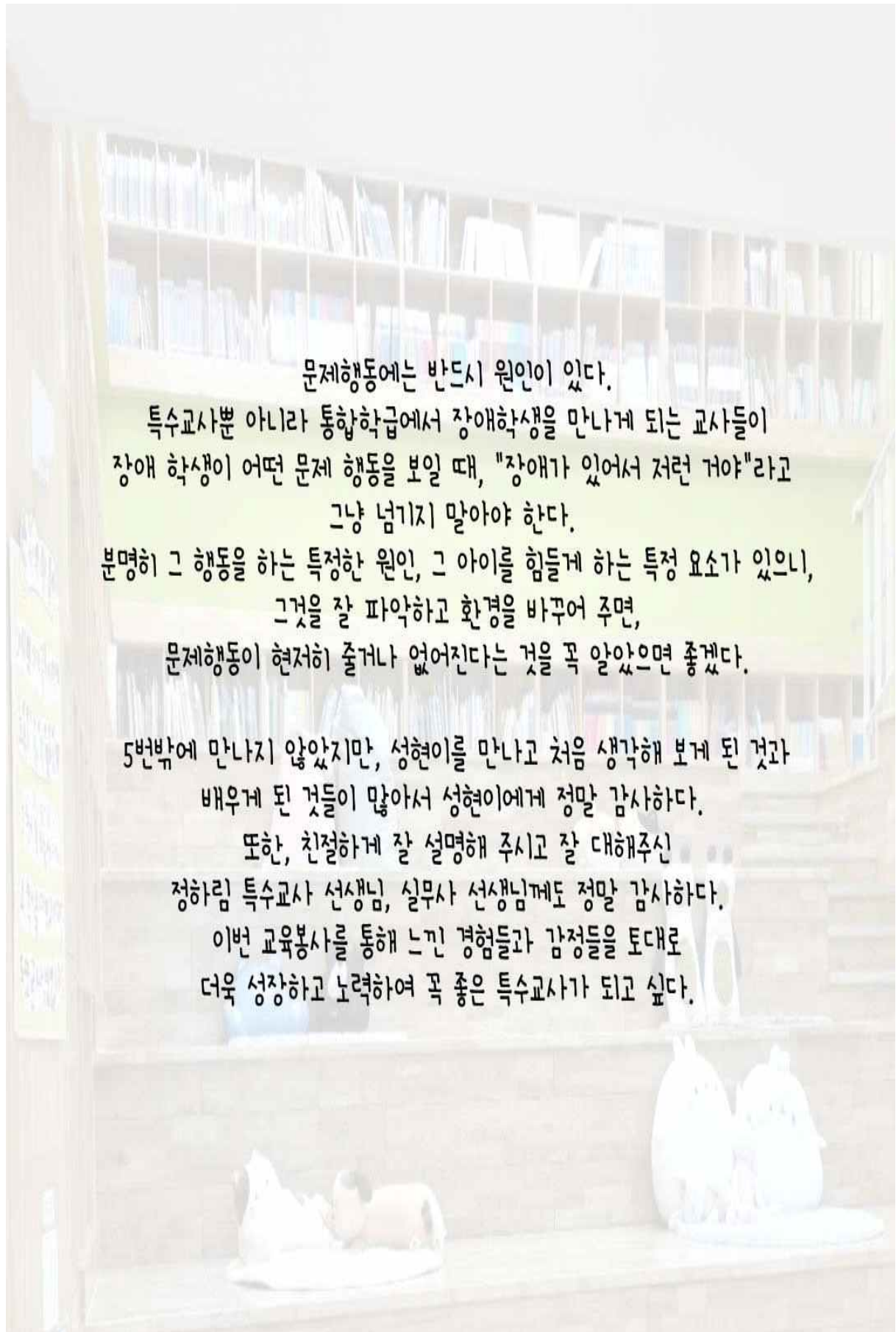
장애인들은 문제행동을 해서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의 특성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느낄 수 없는 불편함과 고통들을 느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거나 소통이 원활

하지 않을때 문제행동으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장애유형과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말이다.)



문제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특수교사뿐 아니라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을 만나게 되는 교사들이
장애 학생이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장애가 있어서 저런 거야"라고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그 행동을 하는 특정한 원인,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특정 요소가 있으니,
그것을 잘 파악하고 환경을 바꾸어 주면,
문제행동이 현저히 줄거나 없어진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5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성현이를 만나고 처음 생각해 보게 된 것과
배우게 된 것들이 많아서 성현이에게 정말 감사하다.

또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잘 대해주시는
정하림 특수교사 선생님, 실무사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하다.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느낀 경험들과 감정들을 토대로
더욱 성장하고 노력하여 꼭 좋은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

<장려>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

류 성 진
초등교육과

“나중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 새내기 때, 교원대 친구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다. 입학하기 전에는 내가 그리는 교사상, 교직원에 대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막상 입학하고 나서는 수업을 따라간다고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느껴졌다. 2022년 여름방학, 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서촌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했던 ‘늘 푸른 학교’ 활동은 이런 내게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교육활동 캠프 동안 나는 4학년 여학생 채은이와 남학생 유찬이, 두 학생의 멘토가 되어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멘토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내가 봉사하면서 느꼈던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그것은 아이들의 잠재성을 끌어내는 교사, 행동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교사, 화합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사,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전염시키는 교사,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는 다재다능한 교사, 아이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교사이다.

<아이들의 잠재성을 끌어내는 교사>

캠프에서 유찬이를 만나서 아이들이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 캠프를 시작하기 전 담당자로부터 나의 멘티 중 한 명인 유찬이가 다른 학생들보다 약간 과잉행동을 하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다. 또 낮을 많이 가리

고 어려운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유찬이가 ADHD까지는 아니지만 지도할 때 약간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다. 입학식을 할 때부터 유난히 활기찬 모습으로 눈에 띄었던 유찬이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던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펼쳐질 교육활동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적는 포스트잇에다 'Angry', 'Bad'와 같은 단어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솔직히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동안 지켜보지 못했던, 유찬이가 살아 온 배경을 이해하려고 했고, 선입견으로 유찬이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차분하게 유찬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후레쉬맨이라는 플래시 게임을 얘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와는 게임이라는 매개체로 한 걸음씩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유찬이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미르 칸 감독의 영화 '지상의 별처럼'에 나오는 니쿰브 선생님의 교육을 보며 배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난독증을 가진 아이 이샨을 편견 없이 대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미술 선생님 니쿰브의 이야기이다. 이샨은 못된 행동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망치고 성적도 꼴찌이다. 그래서 늘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복도에서 벌을 받는다. 그는 우수한 형과 비교당하여 부모로부터 기숙학교로 쫓겨나게 된다. 그러나 이샨을 잘 들여다보면 참 영리하고 명랑한 아이다. 양말을 이용해서 개울 속의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상급생의 부당한 행동에도 비굴하게 굽히지 않고 맞설 줄 안다. 무엇보다 이샨에게는 남들보다 특별한 미술 재능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이때 새로 온 니쿰브 선생님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기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게 하는 자유롭고 열린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이샨의 난독증을 눈치채고 이샨이 좋아하는 과목인 미술을 활용해 지도한다. 이를 통해 이샨은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글자를 쓸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르기까지 니쿰브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샨의 숨은 잠재성을 알아봐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처럼 나는 세상 모든 아이는 다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능력과 배우는 속도가 다를 뿐 모두가 우주와 같이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켜본 유찬이는 말이 조금 느리고 복잡한 활동은 어려워 하지만, 누구보다 활발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였다. 특히 ‘달무티’라는 보드게임을 함께 하며 보여준 유찬이의 끈기에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숨은 보석을 발견한다면 분명 무엇이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관찰하여서 폭넓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길러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행동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교사〉

둘째 날 ‘친환경 화분 만들기’를 진행하며 교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화분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책상과 교실 바닥 곳곳에 흙이 떨어져서 청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곳저곳을 청소하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내어 들고 청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멘티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멘토 선생님인 나를 도와서 자신들이 흘린 흙을 치우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일화 덕분이다. 당시 김수동 담임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학급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이 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청소의 중요성을 알아도 진심으로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대신 앞장서서 청소를 시작하셨다. 걸레질 같은 굵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교실 청소에 동참하였다. 행하는 가치를 실천하시는 선생님을 본받고 싶어 나도 교실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식 전달만큼이나 모범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막상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잘 따라줄지 의문이 있었는데 화분 청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지행합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지행합일’은 참지식에는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교사의 실천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있어 중요할 것이다. 이는 내가 경험했듯이 교사의 행동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본받을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는 교사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인솔하여 공공장소

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꺼야 한다는 에티켓을 학생들이 지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교사가 휴대전화 에티켓을 교육한 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끄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면 어떨까? 이를 보고 학생들도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교사가 된다면 이처럼 실천의 중요성을 몸소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화합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사〉

동요 합창 시간을 통해서는 화합의 중요성을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떡잎 반의 멘토와 멘티 학생들이 함께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를 배우고 합창으로 녹음하는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졸업식에서 상영할 뮤직비디오에 배경음악으로 넣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이 합창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음정과 박자를 맞춰서 조화롭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혼자 해도 아이들에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신이 나서 장난을 치는 아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내 멘티 학생이었던 유찬이도 처음에는 랩을 좋아한다며 남들과 박자를 맞추지 않고 빠르게 노래를 불렀다. 나는 멘토 선생님으로서 합창은 함께할 때 아름다운 것임을 말하며 유찬이가 공감하고 합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다려주었다. 비록 유찬이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유찬이 역시 친구들과 입을 맞춰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해주었다.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부르다 보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끈기 있게 기다려준 다른 친구들에게도 참 고마웠다. 마지막 날 강당에서 우리의 추억이 담긴, 그리고 예쁜 목소리들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뮤직비디오를 함께 봤는데 감동적이었다. ‘화합’은 비록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쉽지는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밥을 먹고, 뛰어놀면서 자라기 때문이다. 나는 화합의 중요성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고 싶다.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전염시키는 교사〉

셋째 날 오후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마시멜로 화산 분출 실험을 하면서는 교사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과학교육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교사의 즐거움은 아이들에게 전염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수업 시간에는 별로 와 닿지 않았는데 실제로 내가 아이들과 수업해보며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아이들과 진행했던 수업은 마시멜로와 식용 색소를 활용해 화산이 분출하는 모형을 만들어보고 실제 화산과 비교해보는 실험이었다. 해당 실험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에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라 5학년, 6학년 아이들은 이미 경험해봤을 텐데도 고맙게도 열심히 참여해주었다. 사실 나 자신이 느끼기에도 실험이 재밌고 흥미로워 보여서 실험을 선정했다. 그래서 그런지 실험을 진행하면서 아이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신기해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실험보다는 마시멜로를 먹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나의 멘티 학생인 채은이도, 내가 정말 신이 나서 마시멜로 화산 모형을 관찰하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나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며 사진과 영상도 여러 장 찍어서 뿌듯했다. 나는 그 날 아이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수업의 분위기, 실험실을 가득 채웠던 달콤한 향기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는 다재다능한 교사>

피아노와 피구라는 두 가지 활동을 하면서는 교사가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재능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피아노 치는 것을 꽤 좋아해서 쉬는 시간이면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아노를 치곤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니 대뜸 내게 피아노를 쳐달라고 아이들이 요청해왔다. 사실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어려워해서 전공과목인 음악 실기 시간에 애를 먹었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노력으로 성적은 그럭저럭 잘 받았지만, 막상 아이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칠만한 곡이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 피아노 연주를 해주지 못했다. 아이들의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보고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내가 피아노를 더 열심히 연습해서 멋들어지게 연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마 피아노에 별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까지 주위로 몰려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남은 시간에 아이들은 항상 피구를 하곤 했다. 나는 평소에 공을 활용한 구기 종목을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참여 요청에 흔쾌히 임했다. 거의 매

경기 오래 살아남아서 팀 승리에 공헌하는 모습에 아이들은 놀라워했고, 피구를 할 때면 반드시 성진 선생님과 같은 팀을 해야 한다면 나를 찾아주는 모습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심지어는 배드민턴이나 캐치볼 같은 운동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해서 해주었다. 아마도 아이들에게 나는 운동을 잘하는 멋진 선생님이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언젠가 강의 시간에 교사는 무엇이든지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이들 앞에서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피아노와, 잘하는 피구의 사례를 대조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을 갈고닦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늘 자신감 있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교사〉

마지막 날 받았던 멘티 학생 채은이의 편지로부터 아이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강당에서 미니 운동회를 마친 후에 멘토와 멘티 학생이 서로 편지를 써주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평소에 편지 쓰는 것을 좋아해서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자주 쓰는 편인데 학생에게 쓰는 편지는 처음이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캠프 기간의 추억과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채은이와 유찬이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멘티 학생으로부터 편지도 받았는데 채은이가 편지에 쓴 말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선생님이 진짜 우리 학교 선생님이면 좋겠어요.”였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한없이 부족한 점이 많은 나를 사랑해주고, 선생님이로 대해줘서 마음이 뭉클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는 기본이지만, 진심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교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송수자 담임선생님은 내게 한글을 배울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물어보셨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친절하게 지도해주셨다. 또 선생님은 글씨를 못 쓴다고 나무라지 않고 바르게 글씨 쓰는 법을 알려주셨다. 이 과정에서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처럼 학

생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교사의 노력은 교사와 학생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려면 우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학생을 대해야 한다. '창가의 토토'라는 책은 우리에게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초등학생 토토는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도모에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토토와의 첫 만남에서 고바야시 선생님은 토토에게 이야기한다. "자, 선생님한테 뭐든 얘기해보렴. 얘기하고 싶은 것, 전부." 이에 토토는 신이 나서 선생님에게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는다. 고바야시 선생님은 무려 네 시간 동안이나 토토의 얘기를 들어준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귀찮아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하게 토토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공감해주었다. 토토와 똑같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열심히 들어줬다.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한다면 학생들은 분명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 토토가 퇴학당하기 전에 담임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토토에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토토가 왜 항상 창가에 서 있는지, 왜 자꾸만 필통을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러면 토토도 자신의 얘기를 마음껏 한 후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선생님의 얘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때 분명 토토와 같은 학생도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학생들을 존중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늘 푸른 학교' 교육활동 캠프를 경험하며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고민했던 흔적들과 나의 솔직한 생각들을 글에 담았다. 교육봉사를 통해서 예비 교사로서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진정한 교육의 의미일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누군가 유능한 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나 역시 이 말에 십분 공감하는 바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교사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항상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나요?"

<장려>

선생님 덕분에

남 유 진
초등교육과

‘내가 누군가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 이보다 내게 더 값진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라져서는 안 될 존재라고 여길 정도로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르친다는 점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항상 생각해왔고 그만큼 선생님이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장할수록 점점 나에게 더욱 추상적인 존재로 다가왔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교실에서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를 곧바로 선생님이라고 여겨왔지만, 정작 내가 되고 선생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선생님이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지에 대한 의문은 나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커져만 갔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바라왔던 나의 꿈인데, 대학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한동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나에게 이 고민의 답을 찾게 해준 뜻 깊은 경험이 내게 찾아왔다.

때는 2022년 1월, 나는 대학 졸업 요건인 교육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내 모교였던 고등학교에 연락을 드려 예비 고2 학생들을 맡아 국어와 영어 멘토링을 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만나 뵈며 나를 이젠 남유진 ‘학생’이 아닌, 남유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기에 아직 그 선생님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학생들을 만나는 첫 시간에 간단히 나에 대해 자기소개를 한 후, 현재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했다. 그러다 시간이 좀 남아 어떤 질문도 좋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몇몇 학생들은 한 학생을 가리키며 “애 선생님 되고 싶어 해요!”라고 외쳤고, 그 학생은 자신을 엄청 부끄러워하며 그런 거 아니라고 부정하며 조심스레 ‘선생님은 공부를 잘했죠...?’라고 내게 물었다.

그 순간 나는 현실을 말해주어야 할지, 희망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 두 가지의 고민이 들었다. 그 학생의 질문 한 문장은 성적 때문에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다름없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게 멘토로서 좋은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안 섰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나는 너무 희망만 주기에는 나중에 더 큰 실망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말하되 노력의 가치에 대해 희망을 주고자 나의 고등학교 시절과 관련지어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사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었다.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머리 엄청 좋은가봐~”라고 말하지만, 난 단 한 번도 내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했을 만큼, 남들에게 뒤처지는 게 무서워 항상 자습실을 가장 늦게까지 지키며 독하게 공부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었다. 그 중간중간에 사실 위기도 많이 있었고 ‘나는 여기까지인 건가’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지만 결국 교원대에 들어와 그동안 간절히 바라던 꿈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기에 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학생에게 충분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당연히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혼란도 자주 찾아오지만 그걸 하나씩 이겨내다 보면 어느샌가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며 이렇게 첫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그 다음 수업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바탕으로 칠판에 직접 써가며 학생들과 함께 예습 및 복습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단순한 멘토가 아닌, 그들을 맡은 선생님으로서 교탁 앞에서 칠판에 써가는 수업을 맡은 것은

거의 처음이었기에 생각보다 나에겐 감회가 새로운 경험이었다. 지난 1학년 동안 전공과 교양수업을 들으며 잠시 뒤로 제쳐두었던 '가르침'의 즐거움에 대해 교육 봉사 기간 동안 스스로 많이 느낄 수 있어 내가 왜 그동안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즐거움과는 비례하지 않게, 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내가 칠판에 적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필기하며 열심히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물론 있었지만, 일부는 졸거나 간혹 빠지는 학생들이 있었다. 사실 내가 교육 봉사를 하던 시기도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 수업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히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그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서 직접 생각해보았을 때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열심히 하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모두가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답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아직 이들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도 아니고 단지 멘토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규 수업이 아닌 방학 중 하는 멘토링이었기에 단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식으로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긴 했지만, 내가 만약 정규 수업에 이들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 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고, 그러다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던,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이 깊어졌다. 그렇게 어느덧 교육 봉사 중반쯤 되었을 때인가. 첫날 내게 공부 잘했냐고 묻던 학생이 수업이 끝난 뒤 찾아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어릴 적부터 꿈이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것인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점점 자신이 위축되고 이제라도 꿈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특히나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나중에 최저를 맞추기가 무섭다고 내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으며 지금의 내가 너무나도 부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역시 첫날 내 예상은 맞았다. 그래서 나는 아직 예비 고2이기도 하고 멘토링에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고 숙제도 꼬박꼬박하는 그 열정을 보면 언젠가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니 아직 포기하지 말고 일단 같이 노력해보자며 그 학생을 위로해주었고, 무엇보다 정말 기본적인 것도 좋으니 궁금한

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껏 공부하며 느낀 질문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까지 질문을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질문을 즐기가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질문이라는 것은 어쩌면 혼자 다른 사교육 없이 공부하다 보니 당연하게 생긴 습관일 수 있지만 나는 이 질문을 선생님들께 거부감 없이 하기까지에는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다. ‘괜히 이 질문을 했다가 선생님께서 귀찮아하시면 어쩌지’, ‘내가 궁금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게 아닌데 이걸 질문하는 게 맞을까?’ 등 지금 생각해 보면 배움에 대해 나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다.

내 자신이 어느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혼자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겪었던 나의 어리석음이 어쩌면 나의 성장을 더디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내가 맡은 학생들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르쳐주었고 그날부터 그 학생은 나에게 용기 내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학생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질문데이’를 마련하여 일주일간 스스로 학습하며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따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데이 전까지 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게 한 이유에는 아직 직접 수업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질문을 하기에는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수업시간 이외에 혼자 공부할 때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보낼 수 있어 학습자 입장에서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학습 자세에서 점차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구분 짓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공부에 큰 열정이 없던 학생도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천천히 시작해나가며 모두가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으며, 나 또한 학생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더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더더욱 커졌다. 특히, 학기 중 정규 수업이라면 하기 힘든 난이도별 수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또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업을 진행하며 중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방학 때 단기 특강처럼 방과 후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규 수업시간과는 차별화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학생들에게 그 즐거움을 느낄만한 그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나는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나름의 게임 시간을 만들었다. 학생들의 여러 질문을 받으며 느꼈던 공통점은 어휘력이 조금 부족해 보였기에 수업이 끝나기 15분 전, 학생들이 헛갈릴만한 어휘들을 따로 준비하여 이에 대한 퀴즈게임을 하고 오늘의 어휘 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록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였지만 이것이 쌓이다 보니 학생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어휘력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이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도도 높아 점차 수업에 대한 참여율 또한 높일 수도 있어 너무나도 서로 뿌듯한 시간이었다. 또 어쩌면 이를 통해 한때 고민이었던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의 교육봉사가 점점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나는 어느 정도 어떤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해질 수 있었다. 직접 학생들을 대해보며 막연히 추상적인 나의 미래 모습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의 호칭에 익숙해진 나 자신을 보며 내가 되고자 했던 선생님에 대한 정리가 어느덧 가능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배움의 가치를 알 수 있게끔 하며 교사 본인 또한 교사로서 가르침의 가치를 알고 이를 마음껏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물론 배움의 가치를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하기까지는 미래 현직 교사로서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며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교사로서 나의 교육적 가치관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교육 봉사 전까지의 나를 되돌아본다면, 사실 나는 교사와 학생에 있어서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생님에게, 즉 나의 모습에만 집중하여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만 해왔지, 학습자가 어떤 모습과 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은 비교적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확실히 직접 학생들과 상호작용해보며 느낄 수 있던 점은 가르침과 배움에 있어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그 수업이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멘토링을 시작한 첫날에는 내가 이 학교의 졸업생이라고 하지만 그 학생들과는 거의 초면과 닮없어 조금 어색했고, 나 또한 그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해 낯도 많이 가렸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칭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

들이 나를 '유진쌤~'이라고 부르며 의지하며 따르는 모습에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거부감 없이 당당히 선생님에게 질문하며 본인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교사 또한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 모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가르침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까지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 수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는 다시 청주로 돌아가 교원대에서 대학생의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모교 방문 입학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다시 내 모교였던 학교에 돌아가 교원대에 대해 이 학교의 선배로서 홍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인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내가 저번 방학 때 교육 봉사에서 만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던 학생이었다.

내가 그 학생을 보자마자 놀랐던 이유는 반가워서도 있었지만, 그 학생이 맨 앞자리에 앉아 짓고 있던 표정 때문이었다. 내가 기억하던 그 학생의 첫 모습은 자신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한없이 자책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었는데 한 학기 만에 본 그 학생의 표정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입학설명회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그 학생은 나에게 다가와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덕분에 국어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으로 올랐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라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짝 돋으며 '선생님 덕분에'라는 말이 내 가슴에 확 꽂혀 날아왔다. "선생님 덕분에"라는 말, 내가 지금껏 살며 처음 들어본 말, 어쩌면 내가 지금껏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닐까 싶다. 내가 진정 학생에게 선생님으로서의 가치를 다 했을 때, 그리고 그 학생이 진정으로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통해 교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으며, 교육 봉사 때 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좀 더 배움이 가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이 되려, 집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비록 방학 때 진행하는 단기 방과 후 형식의 교육 봉사였지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고 싶었기에 했던 그동안의 노력들이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에게 선물처

럼 다가온 것과 다름없었기에 이 말이 더 의미 있게 들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되었어도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이를 학생에게 무조건적으로 결과에 집착하여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 학생에게서 집중했던 것은 단순히 국어 모의고사 1등급이 아닌, 그 학생의 눈빛이었다. 자신의 꿈에 대해 한없이 부끄러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선생님이라는 꿈에 대해 자신과 확신에 차 교원대의 입학설명회를 새겨듣는 그 눈빛은 나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한없이 힘들어하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그 학생에게서 그 꿈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래서 교사하는구나.'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생님이로서 얻을 수 있는 뜻깊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이에 덧붙여, "꼭 저도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될게요!"라며 매우 밝은 얼굴로 나에게 신나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더 많은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도 생기게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어쩌면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말일지는 몰라도 나에게서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그동안 어떤 선생님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회의감과 혼란을 뒤로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준 말이다. 또한, 교육 봉사를 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교사와 학생은 일방적인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학생이 나에게 고마워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 덕분에 성장하며 그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교사란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존재임과 동시에 어쩌면 학생 또한 교사의 성장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훗날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을 통한 시행착오보다는 미리 학생에게 더 많은 경험과 가르침을 주고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직책에 대한 본분을 잊지 않고 교사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학생들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교실이라는 공간의 모습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그들을 위해 정년퇴직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사실 “선생님 덕분에”라는 말을 모든 학생에게 들을 수는 없다는 것 또한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아이들을 맡은 교사로서 나의 본분에 맞게 배움의 가치를 최대한을 느껴주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즉, 나는 이번 교육 봉사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단지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뒤에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자 하는 것이 교사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이번 교육 봉사에서 깨달을 수 있었으며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훗날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다. 내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약 13년간 꿈꿔왔던 나의 미래 모습이 점차 구체적으로 형체를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희미해져 갔던 나의 꿈이 어느새 선명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교육 봉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다.

<장려>

선생님이라기엔 먼, 선배라기엔 가까운 배생님으로서의 8일

서 현 진
음악교육과

‘배생님’은 본교로 교육봉사활동을 다녀왔을 때, 후배이자 재학생들이 저를 ‘선배 선생님’이라 부르며 제게 붙여 준 소중한 별명입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선생님이라기에는 아직 부족한, 선배라기에는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졸업생으로 학교를 다시 찾아가 교육봉사를 한 경험은 무척 뜻 깊었고, 값진 경험을 수기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0시간이라는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민의 결과,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본교에서 봉사하고자 했고, 평소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선뜻 교육봉사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주셨고,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본교인 김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업량 유연화 프로젝트 보조, 사범대학 진학 희망 학생 대상 멘토링, 교육심리학 수업, 열린 음악회 행사 준비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별로 간단히 나누어 수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수업량 유연화 프로젝트 보조

제가 교육봉사를 다녀온 6월 말에는 ‘수업량 유연화 프로젝트’ 주간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수업량 유연화는 ‘교과 융합형 주제 중심 프로젝트’라는 취

지 아래, 소모둠을 결성하여 모둠별로 관심 있는 분야를 1주일동안 심도 있게 탐구하여 산출물을 제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 ‘2040 미래 교과서 만들기(지식과 분야의 미래모습 탐구)’활동의 보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둠별로 미래에 개설될 과목을 선정한 이후, 책의 개요, 목차를 작성하고 하나의 단원을 집필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기에 앞서, 담당 선생님이자 옛 담임선생님께서 제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제 주관에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문학, 역사, 영어, 정보 등 여러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째 날,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교과서 집필 자체의 갈피를 잡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요를 작성하며 대략적인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개요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20년 후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는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미래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넘쳐나는 정보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고 이를 재가공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 교사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요를 작성하며 교육 목표를 설정하니 이후 활동들이 수월해졌고, 이후 5일에 걸쳐 하나의 단원을 완성했습니다. 문학 교과서를 집필한 모둠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문학 사조의 흐름을 바탕으로 20년 후에는 어떤 양상

으로 교과서가 변화할지 예측한 점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k-pop을 문학적
으로 해석하고, 표현의 미세한 차이에서 오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안도 고민해 본 흔적이 보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교사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존
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교육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스
스로 꾸려나가도록 돕는 데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악도 많은 변
화를 겪고 있습니다. 화성 진행에 구애받지 않는 작품, 다양한 현대적 주법과
미디를 비롯한 새로운 악기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는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도
미래 교사로서의 의무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치게 될 교과와 교
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기에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의의가 컸습니
다.

2. 사범대 진학 희망 학생 멘토링

방과 후 시간에는 교대 및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링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멘토링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40
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말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어떤 조언을 해 주어야 할지 많은 고민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
토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제게 외국어고등학교란
깊은 지식의 학습 공간이기도 했지만, 내신과 비교과 모두를 챙겨야 하는 극
한의 경쟁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탈김플'이라 말할 정도로 치열하게 3
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임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과정에서 제가 가진 마음가짐과 학습 방법을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교과와 비교과 병행 방법,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작
성 요령, 사범대의 교과 커리큘럼, 질의응답 순서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하루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신과 비교과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등 어쩌면 당연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회 임원과 동아리 부장으로서 지낸 것이 주도성과 리더십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예시로 오케스트라 부장으로서 한마음학원에 연주 봉사 활동에 다녀온 후, 이를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에서 효과적으로 녹여낸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범대에서 전공과 교육학 두 가지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과 다양한 교육적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일상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는 내신 성적 올리는 방법, 제2외국어 공부법, 사범대 진학 후 진로 등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직결된 시간이었기에 멘토링을 통해 열정적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가치판단을 피하고,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과 지지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3. 교육심리학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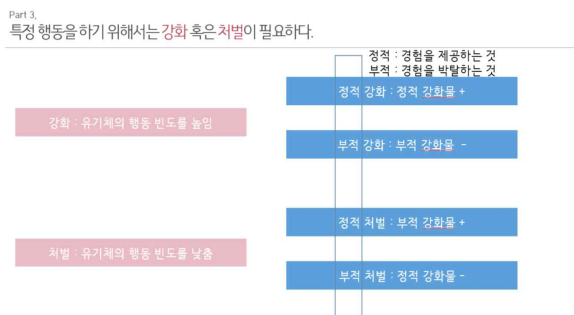
수업량 유연화 프로젝트 주간이 끝나고 출근했을 때, 선생님께서 제게 심리학 수업 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실제 교단에 나가게 된다면 자신의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후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으로 교단에 서게 되어 설레는 한편, 4시간 만에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무척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심리학 교과서를 찬찬히 읽어보며 수업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 수업 진행이 가능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학기동안 교육학개론 시간에 심도 있게 공부한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수업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을 수동적 존재이며, 학습을 이전에 없던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기에 현대 교육관에서 지향하는 바와 괴리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양한 학습 이론의 한 종류인 점을 인지시키고자 수업 초반에 학생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학습’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등의 여러 대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의 대표적 이론인 고전적,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에 대해 수업했습니다. 행동주의에서 상정하는 용어가 다소 어려웠기 때문에 효과적인 설명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면 어떨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중성자극이 조건자극이 되는 점을 설명하며, 반려견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혹시 목줄을 꺼내기만 해도, 간식 창고에 다가가기만 해도 강아지가 신나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고전적 조건형성과 결부시켜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행동의 강화와 처벌을 설명하며 스키너의 심리상자 실험도 다루었습니다.

행동주의가 인간의 행동을 일정 부분 올바르게 설명하지만,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한계를 가지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를 제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의 한계에 대해 질문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업 이후, 선생님께 수업 실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좋았던 점으로 ppt를 이용해 설명할 때, 앞뒤 슬라이드를 오가며 내용을 상기시키도록 했던 점, 사례를 적절히 이용해 흥미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제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고 발성 방법을 고칠 것, 학생들에게 질문한 이후, 요약해서 재진술할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시며 개선할 점도 일깨워주셨습니다. 한 시간의 수업 뒤에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는 제게 ‘너의 첫 수업이 특목고라는 점을 유의해야 해.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네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단다.’라고 하셨습니다.

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한 16기 영어일본어과 학생을 비롯한 김해외고 학생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학습에 대한 열의가 강했고, 덕분에 교육봉사활동 기간 동안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수업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 학생들과 소통하며 친해진다는 것이 무척 설렘이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설렘을 가득 안고 저의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 열린 음악회



이틀 동안의 열린 음악회 보조는 전공과 직결된 활동이었기에 교육 봉사 기간 다양한 활동 중에 제일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음악회 전날의 리허설과 당일의 일정에 참여하며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고, 음악교사를 꿈꾸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악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며 틈틈이 음악 임용, 음악 교사의 업무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춤, 합창, 밴드 등의 리허설 무대를 본 후, 음악회 무대로 선정되는 팀들의 평가 기준에 대해 선생님께 여쭙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음악성보다 학생들이 협동하며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어야 음악의 완성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리허설에서 제 역할은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무대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오케스트라 부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의견을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무대 직전 날이었기에, 공연의 큰 틀을 바꾸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

기 간 소리 크기의 균형을 맞추고, 셈여림 등의 악상 기호를 지키기만 해도 더욱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몇몇 부분에서는 화성적 코드 진행에 부합하는 음을 추가해 풍부한 소리가 날 수 있게끔 간단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악선생님과 함께 음악회를 준비하며 열린 음악회 주관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문서 작업 등 학생 때는 알지 못했던 업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음향장비 대여, 무대장비 배치를 고려한 무대 순서, 학생 인솔 계획 등 하나의 무대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무대를 해내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항상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학생이었는데, 교사의 입장으로 공연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봉사를 다녀온 후 느낀 점을 간략히 적어보려 합니다. 교육봉사를 가기 전에는 교사를 꿈꾸며 교원대학교에 입학한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체능의 길을 걷기 어려워 꿈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저는 적성과 맞지 않는 어문학과에 진학했고, 결국 교사의 꿈에 재도전해서 교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과정으로 학교에 합격해서 그런지 실제로 교사가 된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봉사를 가서 여러 수업 및 멘토링을 진행하니 제 적성에 맞는 학과에 오고 교사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수업에 경청하는 학생들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나 뵈은 은사님들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졸업생이자 후배 교사의 신분으로 본교에 찾아가니 선생님들께서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관심으로 절 맞아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학생 때 해보면 좋은 활동들, 임용고시를 대하는 마음가짐, 실제 교직에서의 생활 등을 전해들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교사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며 제가 지향하는 교육관을 정의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과목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의 지혜를 알려주는 삶의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는, 배움의 대상을 학생으로 국한하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장려>

학교별 교육봉사 탐험

오 채 진
컴퓨터교육과



**찾아가는 수업 진로단을 통해
교육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밸런싱 아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밸런싱 아트 교구 등을
이용하여
밸런싱을 연습하는 모습^^**



12/02
(금)

연세초

●
학교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
수업한 학년

초등학교 6학년

●
소감

첫날이고 혼자 수업보조로 참여하는 학교였어서 많이 떨렸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연세초등학교 친구들이 반응을 너무 잘해주고 원활하게 수업에 따라와줘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웃 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www.mangoboard.net

12/02
(금)

연세초





이웃 디자인 제작 플랫폼, 망고보드

www.mangoboard.net

12/14
(수)

으뜸초



학교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마은로

수업한 학년
초등학교 1학년

소감

초등학교 1학년은 사실 처음이라
어떨지 상상이 안되었는데 가보니
수업 진행할 때 반응이 정말 귀여워서
진행하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만큼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www.mangoboard.net

12/14
(수)

으뜸초





www.mangoboard.net

12/16
(금)

죽림초

● **학교 위치**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 **수업한 학년**
초등학교 6학년

● **소감**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교구를 굉장히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이 기대되는 수업이었다.



12/16
(금)

죽림초





12/20
(화)

새터초



●	학교 위치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	수업한 학년
초등학교 6학년	
●	소감
수업을 몇 번 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이 교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교구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조절하였다. 교육봉사를 할수록 경험이 증가되는 것 같아 좋았다.	

*본문 디자인 제작: 김정은, 양미연
www.mangoboard.net

12/20
(화)

새터초





*본문 디자인 제작: 김정은, 양미연
www.mangoboard.net

12/22
(목)

전 의 중

●	학교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운주산로	
●	수업한 학년
중학교 1학년	
●	소감
중학년이라서 겁을 약간 먹고 갔는데 학생들이 설명할 때 먼저 시작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과물은 확실히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다.	





































































































































































































































































































































































































12/23
(금)

해밀고



학교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해밀2로

수업한 학년
고등학교 2학년

소감

한창 입시에 바쁠 고등학교 2학년
이라서 강연식 수업에 집중을 잘 하
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으나
학생들이 집중해주려고 노력해주
어 수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12/23
(금)

해밀고





**뜻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봉사
활동이었다.**



<참가작>

‘호두’같은 시간

김 가 연
일반사회교육과

“교사를 꿈꾸기 위해 당연한 교육 봉사? 교육 봉사 시간이 없으면 졸업을 못하니까 해야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보았다. 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존재가 교육 봉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가 경험한 교육 봉사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모교로 가서 교육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학교 행사의 준비를 도와주기도,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경험으로는 나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단순히 봉사시간만을 위한 봉사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교육 봉사는 ‘봉사’라는 말이 붙어있듯 남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 힘쓰는 일이다. 그렇기에 내게 교육 봉사 시간은 솔직하게 말하면 배움보다는 힘든 시간이었다. 봉사시간이 재밌긴 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잡다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봉사가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 봉사시간은 모두 채우게 되었다. 더 이상의 교육 봉사의 시간은 필요가 없었기에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다른 활동들을 해야 겠다고 생각했으며, 교육 봉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많은 친구들의 교원대학교 교육기부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SNS에 게시된 다양한 후기 글을 보며 교육 봉사에서 소중한 꿈을 찾아가기도 교육 봉사에서 큰 배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양한 글들을 보며 과연 교육 봉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친구들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느끼고 왔을지 흥미와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

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늦은 시기였고, 봉사시간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온양용화중학교에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교육 봉사였지만, 이 교육 봉사를 통해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온양용화중학교에서의 교활은 '도전'의 마음으로 시작한 교활이었다. 심지어 처음부터 지원했던 교육 활동이 아니라 추가 지원으로 갑작스럽게 가게 된 교육 활동이었기에 더욱 도전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이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말이 통하지 않는 다문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다. 다문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에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수업은 어떤 내용을 해야 할지, 대화는 통할지 등등의 다양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 에서 고민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배우지는 못하지만,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 학생들에게 '권리'를 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의 권리를 지켜요!"라는 수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황 속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권리'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알아차리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보며 이 수업은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다문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는 시간이었고, 말도 안통하고 적은 인원의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적응이 되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게 되는 나를 볼 수 있었고, 대화는 안 통하는 다문화 친구들이지만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 처음에는 벽도 존재했고 아무리 다가가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기분이 들었지만, 학생들은 어느새 먼저 다가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시작했다. 마지막에 학생들은 "선생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또다시 생각해도 눈물 나는 시간이었다. 교육 활동이 모두 끝나고 교장 선생님과 짧은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들이라 어느새 다시 자신

들의 나라도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씀해주셨다. 한국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라고 말씀해주실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교육 봉사를 의미를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지나가는 재밌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학생이라도 가치 있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된다면 이는 그것만으로 성공적인 봉사가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서 '또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러울 정도로 이 아이들과의 만남은 소중했다. 비록 교활의 5일은 어느새 지나갔지만, 그 짧은 시간은 어느 시간보다 소중했고,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2022년이 되어 다시 한 번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름방학 때 얻은 소중하고 귀중한 기억 때문에 교육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 호기롭게 지원했지만, 막상 4학년이 되어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나에게는 어느새 너무 부담이 되고 있었다. 처음에 지원할 당시에 생각만 해도 지난 교육 활동에서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겠다는 다짐만으로 신청했던 것 같다. 부담이 가득한 와중에 최선을 다해 나의 모습과 열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렇게 교육 활동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기대도 걱정도 되어 사실은 한 발짝 조금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계속 걸어주면서 다가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 어떤 선생님은 친구처럼 어떤 선생님은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학생들에게 말 걸어주고 함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학생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너무나 반갑게 나를 받아주었다. 그렇게 나의 교육 활동은 다시 희망으로 채워졌으며 이 시기에 교육 활동에 참여한 것이 후회보다는 기회의 열정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며 진심을 다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사실 이번 교육 활동은 문제가 생겨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처음으로 아쉬움이 특별한 추억이 되는 신기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총 3번의 교육 봉사를 통해 교육 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

다. 교육 봉사는 '호두'와 같은 시간이다. 겉은 딱딱하고 단단해 보이는 '호두' 같은 모습의 학생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하얀 속살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하얀 속살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 봉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호두 같은 학생들에게 나의 교육 봉사는 좋은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미래에도 호두 같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가며 호두 속 하얀 속살을 발견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고, 학생의 인생 속에서 작은 순간이라도 가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교육 봉사를 통해 봉사시간이 아닌 진정한 가치의 교육 봉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육 활동을 가기 위해 했던 몇 달 간의 노력은 교육 봉사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주기도 하였고, 교육 봉사를 통해 만난 학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사를 꿈꾸는 나에게도 호두의 건강하고도 좋은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시간이었다.

호두

- 김가연 -

울퉁불퉁 딱딱하고도

어색한 우리

자꾸만 두드려도

미끄러지고

달라지지 않는 너

나를 위해 살고 있던

나를 두드려주던 너

조용히 열린 너의 모습

너도 나에게

나도 너에게

호두가 되고 싶다

교육 봉사 수기 공모전을 기회로 교육 봉사에 대해 돌아볼 수 있던 시간이 되어 감사하고, 교육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수기 공모전을 기회로 적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호두 같은 만남이었던 교육 봉사의 시간을 통해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교육 봉사의 시간이 어느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희생할 만큼 큰 영양분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믿는다. 학생들에게도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시간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참가작>

함께 성장한 학습지원활동

김 건 훈
영어교육과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교내 봉사 동아리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녔다. 우리가 봉사를 했던 곳은 '청주 푸른학교 지역 아동센터'였는데, 주로 격주 토요일에 방문해 7살부터 많게는 16살까지의 학생들의 학습을 1대1로 지원해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교사의 꿈을 가진 이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보는 것이었기에, 설레기도 했고, 긴장감도 감출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약 2년 정도의 봉사를 진행하면서 내가 교사의 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아이가 떠올랐다. 그녀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수아(가명)다.

수아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맡은 아이로, 주로 수학을 맡아 학습을 도와주었다. 사실은 봉사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수아가 센터 내에서도 매우 활발한 아이로, 다르게 말하면 수업에 오래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먼 거리를 가서 학습을 도와주는 만큼, 가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나의 열정, 계획과는 다르게, 수아와의 수업은 늘 피로만 쌓여갔다. 수업을 듣는 것보다 아직은 또래의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였기에, 차분하게 앉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역시나 무리였던 것이다. 수아를 맡은 초반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혔었고,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거나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었다. "제가 놀겠는데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수업 안 들을 거라고요!" 등등 어쩌면 아이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은 나에게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를 기점으로 내가 교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의구심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하는 예비교사의 입장인 내가 무작정 학생을 무시하고, 센터에 다른 학생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내가 시작해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수아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수아와의 관계를 잘 풀어내고,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의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었다. 그 고민의 답은 몇 번의 수업 지원 활동 이후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학’ 수업을 수강 중이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책이 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들께서 쓰신 ‘교육학개론’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 속에서 나는 특히 상담심리학 부분을 재미있게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학생과의 상담 이전에 ‘라포 형성’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불신이나 의심을 덜고 서로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며, 상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수아와의 일들이 떠올랐다. 내가 수아의 학습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쩌면 서로 간의 유대를 쌓는 것,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교육 지원을 나갈 때에는, 수업을 나가는 것 이전에 수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봉사를 나가게 된 날, 우연히 그 친구의 휴대전화 잠금 화면을 보게 되었다. 한 남자 아이돌의 사진이었는데, 나 역시도 아는 사람이었다. 수아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수아의 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고, 단순히 그 남자 아이돌에 대한 주제를 넘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수아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때 만큼은 수아가 말도 안 듣는 천방지축 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수아는 점점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전과는 달리 수업 시간이 화목해질 수 있었다. 수업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학습할 범위를 상의해 정했고, 중간 중간 쉬는시간을 통해 재정비의 시간 또한 가졌다. 수업 이후에 남은 시간에는 이번주에 있었던

일, 요즘 관심있던 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이 교육활동을 안 했다면, 그 활동에서 수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의 교육관은 단순히 학생들이 나의 지시를 잘 따라 학습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아와의 만남을 계기로,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본인의 지식을 전수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학생이 사회로 나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를 준비하는 나 역시도 수아와의 일을 통해 느꼈듯이, 학생들과 랑포 형성을 통해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깨닫고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진 우
지리교육과

코로나와 함께 입학한 학번으로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여서, 코로나니까 할 수 없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뿐이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집에서 강의만 들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울해지거나 지치기 일쑤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그렇게 교육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육 봉사를 통해 새로운 도전이 생겨나 지금까지도 그 불길을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내 삶을 성찰하게 되었다.

2021년 3월 학과 카톡방에 방송고등학교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충 수업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실제로 해본 선배와 동기의 조언을 받아 신청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교육 봉사는 2021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교사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준 활동이 되었다. 성인 학습자라는 생소하고 낯선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맡은 일은 매주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19주를 진행하면 됐다. 수업 제작까지 해서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은 없었기에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용을 직접 구조화하고 피피티를 제작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일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업 중에 버벅거리며 설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교사를 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인 학생들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들어온

학생 중 절반 이상이 나가서 나중에는 4명의 학생만 수업을 듣게 되니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 처음엔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수치스러웠다. 그러나 정말 내 실력을 마주하니 처음부터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에 대해 돌이켜볼 수 있었다. 열정과 학생을 위한 마음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에게 실력도 겸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봉사를 통해 교사가 지녀야 하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의 부족하고 무능함을 마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주었다.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수업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몰랐던 개념들을 머리에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해주시자 다른 분들도 맞장구쳐주시며 감사 표현을 해주셨다. 그날 수업이 끝난 직후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한 번에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을까 알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벅차올랐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영어가 어렵지만 재밌다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다.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학습의 결핍이 내재 되어서일까 배움에 대한 갈망이 그리 아름다운 것인지 몰랐다. 잘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자료를 보고, 서툴지만 한글자씩 적어 내려가는 공책을 보면 무엇이랄도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타올랐다. 수업 시간이 되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적으며 따라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더욱이 수업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허투루 할 수 없었다. 점차 나에게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학생이 아닌 조금이라도 영어에 흥미를 지니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학생이 되었다.

내가 맡은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냥 졸업장을 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학생들이었다. 사회적으로 늦었다고 보일 수 있지만,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 주어진 하루를 도전하는 학생분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어떤 분은 70이 다 되어 가는 나이지만 대학을 가는 것이 꿈이라는 분도 계셨고,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셨다. 목표와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본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배우시는 분들이 부러웠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꿈꾸며 살고 있을까? 새

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기대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어떤 이에게 나의 작은 재능 기부가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꿈을 꾸게 해주었고, 꿈을 실현해주었다. 누군가의 희망의 물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교사가 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소망과 용기의 시작을 불러일으켜 주고 싶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들에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가는 태도. 그들의 삶에 들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말로만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 봉사를 통해서 교육은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다.

방송고등학교 학생들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분들이다. 나의 수업이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남들과는 달리 늦은 나이에 대학을 꿈꾸게 해주고,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그마한 꿈과 소망을 듣고 나니 배움의 불길이 타올랐다. 학생들 덕분에 새로운 배움을 시작했다. 미뤄뒀던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공 책을 펴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GTU 토론대회에도 참가했고, 지금은 파란 사다리 사업에 참여해 원어민 교수님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인터뷰 방식을 배우고 있다. 코로나로 닫혀있던 마음이, 다양한 방법들로 해결해보려고 했던 고민이 그냥 학생들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사라져 버렸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내 세상의 끈들이 손쉽게 풀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도 변화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참가작>

사랑의 다른 이름

이 가 은
생물교육과

졸업시험이 끝나고 임고생으로서의 부담감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쯤, 과 동기 택민이 오빠야로부터 함께 교활을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별 힘들겠나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들과 놀고 오자는 마음도 있었고, 임고생 전에 새로운 해의 시작을 교사의 꿈을 실현하는 경험으로 하면 좋겠단 마음이 컸기에 흔하디흔한 지원동기를 끄적이며 신청서를 넣었다. 불합격된다면 하던 공부나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에 딱히 간절함도 없었던 것 같다. 몇 주 뒤 붙었다는 연락이 왔고, 2-3달에 걸쳐서 약안을 수정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빠센 일정에 가끔 지치기도 했지만, 내가 짠 수업을 학생들 앞에서 할 생각에 설렘이 더 컸다. 그렇게 4박 5일의 청신여중 교활이 시작되었다.

첫 날, 학생들을 만나러 3분반 교실에 들어갔고, 내가 맡은 1조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처음 본 선생님들과 딱히 기대가 없어 보이는 우리 조 학생들에게 늘 그렇듯 먼저 살갑게 말을 건넸다. 행복을 건네면 행복이 오고 위로를 건네면 포용이 오듯이, 웃음을 건네니 피곤해보이던 친구들 얼굴에도 하나 둘씩 웃음꽃이 피었다. 일주일 내내 새벽 1시 쯤 잠들어 5시 반에 기상해야했던 나는 체력적으로 힘들수록 웃었다.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내가 먼저 지은 웃음에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웃음을 보며 다시 열정을 되뇌었다.

수업을 한 4일 동안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고 싶었다. 내 수업시간이든 다른 선생님의 수업시간이든 동일했다. 각자 충분히 사랑받고, 받은 사랑을 흘러 넘쳐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주 천천히, 누군가에게 활기찬 모습으로 각자의 속도와 강도에 맞게 다가가려 했다. 최대한 내 진심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전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했다. 그렇게 무던하게 4일이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었다. 감정에 보기보다 무딘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만큼 마음이 일렁이지는 않아서 울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지현이, 헤민이, 인순이가 따로 편지를 써와서 손편지를 건넬 때 내 노력이 헛되진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소감을 발표했다. ‘어릴 때 어른들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스러운 눈빛들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지어지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들 앞에서 길게 말하진 못했지만 소감을 덧붙이자면, 그 아이가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거나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서가 아니라 그 나이 대에 맞는 순수한 감정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 감정들에 흔들리기도 하면서 위로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아는 그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바라만 봐도 모두가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다. 그런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 세상이 현혹시키는 기준들, 이기적인 관계들에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아이들을 통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포함한 모두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마음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수없이 내려놓고 연단하며 조금 더 나은 어른으로 매일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며칠 전 엄마와의 대화에서 다시금 알게 된 사랑의 의미는 10층에서 1층에 있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10층으로 올라오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1층보다 낮은 지하로 내려가 그 아이의 상황을 그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 이번 교활에서 무던히 노력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가끔씩은 내 체력과 기분이 먼저가 될 때가 보이지만 조금 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만큼 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한 교활이었다. 이제는 임용고시에 집중해야하는 시기가 시작되지만, 조급함 보단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가작>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이 승 연
영어교육과

2019년, 학교에서 진행하는 에이스 사업에서 새날학교 멘토링에 참여했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멘토링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때 기억이 매우 인상 깊었다. 학창시절 내가 봐왔던 친구들과 달리, 한국어 사용을 어려워하는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했기 때문이다.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중국어/ 러시아어 등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진땀을 빼곤 했다. 점점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내에도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문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온양용화중 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온양용화중학교에는 다문화 학생이 많고, 교활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대부분이 다문화학생이었다. 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담당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 안내받았다. 한국어 사용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 말하기는 가능하지만 읽기/쓰기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과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급히 수업계획을 조정했다. 우선 수업의 주제는 미세먼지였다.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 예방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미세먼지를 수업주제로 잡았다. 원래는 이론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나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중심의 수업으로 바꿨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만드는 활동을 추가했는데,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쉬워 학생들이 의사소통의 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와 줄 것이라

생각했고, 100분이라는 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려와는 달리 4일간 교활프로그램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처음엔 부끄러워 자기소개도 꺼려하던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마다 먼저 말을 걸고 마음의 문을 여니 학생들의 수업태도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사전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유대관계를 쌓고 나서 내 수업시간이 되었다. 미세먼지란 무엇인지, 미세먼지가 생기는 원인과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방수칙(ex. 대중교통 이용하기),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마스크 착용하기) 약속하기 등을 진행했다. 그 중 학생들을 각 조로 나누어 예방수칙을 5개씩 적어보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의 흐름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무척 걱정했는데, 미리 보여준 영상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고 예시를 거듭 반복하여 설명함으로써 스키마를 자극하였더니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했다. 그리고 믿음직한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각 조에 2명씩 붙어서 수업 보조를 해주셔서 수업의 시너지는 배가 되었다. 교육학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전문적 학습공동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며 신이 나서 수업을 진행했다. 아무래도 나 혼자서 수업을 진행했다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텐데, 보조 선생님들의 지도에 큰 영향을 받아 학생들도 더욱이 맘을 열고 수용적이고 참여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던 것 같다.

수업 때 아이들이 열심히 그리고, 글을 쓰고, 선생님 이걸 어떻게 써요? 하면서 한국어를 또박또박 적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맞춤법이 틀리고 글씨체가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열의와 수줍은 미소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4일간의 시간이 모두 보석처럼 소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있었다. 다문화학생들과 진로상담을 했던 시간이었다. 많은 학생들 중 내가 담당한 학생은 베트남 출신 남학생이었다. 평소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던 학생이었는데 개별상담을 하면서 그 학생의 의외인 모습을 많이 보았다.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한국에서 역사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중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역사적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번역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했다. 학생의 말에 공감적 태도로 귀 기울여 들어주니, 태극기와 베트남국기를 그리면서

까지 내게 각 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1시간의 상담이 끝나고 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학생들이 가진 꿈과 잠재력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학생의 편에 서서 그 잠재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깨달았다. 또한 온양용화중 교활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언어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업도중 영상자료나 핵심키워드는 각 국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학생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교사의 '진심'은 국경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에 도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날학교에 이어 이번 온양용화중 교활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4일이었다. 앞으로 교사가 되어 다문화학생과 함께하는 학교현장에서도 이 기억을 상기하며,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참가작>

교학상장

박 정 수
기술교육과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을 다니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찾을 수가 없어졌다. 교원대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다. 그러나 일 년 이년 삼 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꿈은 희미해져서 갔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자 하는 마음만 남았다. 무엇이 나를 이토록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 것일까. 사실 남 탓을 할 이유는 없다. 교원대를 다니며 교육학도 배우고 교과 전공도 배우고 교생 실습도 다녀오고 보니 교사의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보게 되며 '내가 바라는 교사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12년 정도의 시간을 학생의 관점에서 학교에 다녔다. 학생이었을 때 나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교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 학교의 전체주의적 사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가 잘못된 일이 아니어도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같이 혼나고 맞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리고 당시의 내가 느끼기에는 교사의 비합리적인 지시와 앞뒤가 다른 행동들이 저런 생각을 하게 한 것 같다. 학생이었을 때는 정말로 내가 교직의 길을 가게 될 줄은 몰랐으나, 만약 교사가 된다면, 내가 만난 교사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내 학생 시절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면, 그럴 만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계 공립 남자 중학교는 야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

택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내가 선생의 입장으로 내 중학교 모교에 간다면 '과연 내가 그 선생님들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생각은 동네 학원에서 잠깐 수학 강사로 일을 했을 때, 더 들었다. 내가 담당한 학생들은 학원에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러 오기보다는 친구들이 다 학원에 다녀서 방과 후에 친구랑 놀기 위해서 학원을 오는 아이들이었다. 더군다나 사춘기를 겪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는 학원을 수시로 결석하는 아이도 있었다. 비록 학원 강사이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한다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학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원에 잘 나오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었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만난 선생님들도 젊은 시절에는 각자의 교육관을 지닌 교육자였겠으나 하루하루 현실을 지내며 어쩔 수 없이 보육자가 된 것이 아닐까.

좋은 교사는 결국 교육자와 보육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학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활지도 분야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생활지도 강의를 수강 신청해서 들어볼 계획이다. 요즘 학생들은 나와 세대가 다르므로 어떤 학창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교육 봉사를 하며 요즘 학생들이 아닌, 예전 학생들이 어떤지 경험할 수 있었다. 공부에는 때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사회적인 시간을 지나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공부만 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학업에 대한 의지가 커진 것일까? 교육 봉사를 통해 만난 만학도 학생분들을 대할 때, 나는 보육자가 아닌 전적으로 교육자의 모습이었다.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즐거웠고 학생들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도 좋았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같이 팝송을 부르는 것도 기억에 남는다.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지 그전까지는 몰랐다. 각자의 생업이 있기에 학업에 몰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토록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약간 모순된 점이다.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와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말을 우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공부도 역시 억지로 학교와 학원에는 데려가 놓아도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 아닐

까.

우연한 계기로 요즘 학생들이 아닌 옛날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 봉사를 할 곳을 구하지 못해, 학교 공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송 통신 중학교 교육 봉사를 알게 되어 신청하였다. 처음에는 방송 통신 중학교가 십 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 줄 알고 지원했었다. 그런데 교육 봉사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서 만학도 어르신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본 경험은 있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본 적은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아직도 첫 강의가 떠오른다. 나는 영어 과목을 담당했는데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과 간단한 알파벳을 읽는 방법을 수업했다. 학생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호칭 문제부터 해서 내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며 식은땀이 흘렀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학생분 중에서 한 분이 나보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할 정도였다. 캠으로도 긴장한 게 티가 난 것 같아 좀 부끄러웠다. 나름 남들을 가르쳐본 경력이 있다고 자부한 편인데, 부모~조부모 나이대의 어르신들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니 색다른 느낌과 부담감이 동시에 다가왔다.

만학도 학생분들은 10대 학생들보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수업 도중에 질문하는 때도 많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자 했다.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의 짧은 수업이지만, 나는 매주 수업자료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노력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수업을 진행했는데 팝송을 들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서로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볼 것을 기약하곤 했다. 모든 학생이 다 기억에 남고 정이 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학생이 두 분 계신다. 15명 정도의 학생 중에서 청일점인 50대 남성분이셨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앞으로 각자의 목표와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그분의 목표는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통대를 나와서 노인대학의 강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목표가 뚜렷하신 만큼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다. 그리고 60대 여성 학생분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진행한 수업이 방송·통신 중 수업보다 약간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셨지만,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고 수업자료를 미리 프린트해서 보고 싶다고 미리 올려달라고 하실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다. 보통 방송 통신 중학교의 수업은 중학교라고 하지만 내용의 난이도는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이다. 근데 나는 수업을 할 때, 실제 현역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수업했다. 대신에 단어의 난이도와 예문의 수준을 낮춰서 최대한 학생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했다. 수업에 대한 학생분들의 반응도 좋았다. 그분들은 영어를 방송·통신 중에서 거의 처음 접했는데, 파닉스를 넘어서 영문법, 회화, 실제 영어문제 풀이 등등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내 수업을 통해서 중학교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는 없지만, 학생분들이 내 수업을 들으면서, 수동태가 뭔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문사와 접속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갔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낯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영어를 한번 경험하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과외도 해보고 학원 강사도 해보고 교육실습도 나가봤지만, 수많은 수업 중에서 방송·통신 중 교육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수업이었다. 누군가 가장 기억에 남은 수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방송·통신 중 수업의 첫날과 마지막 날일 것 같다. 수업의 첫날은 너무 긴장해서 땀을 흘릴 정도여서 기억에 남았고 마지막 날은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아쉬워서 기억에 남는다. 수업의 정원은 15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8~10명 정도의 학생분들만 고정적으로 들어오셨다. 나머지 분들은 생업이 바쁘셨는지 아니면 내 수업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신 것 같다. 끝까지 함께한 10명 남짓의 학생분들의 모습이 아직 눈앞에 선명하다. 작년 10월에 이미 수업을 종강했음에도, 비록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니터 화면 너머로 학업에 대한 학생분들의 의지와 열정이 보였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워가는 수업이었다. 방송·통신 중이 중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있는데, 나중에 내가 발령받은 학교에 부설 방송·통신 중학교가 있다면 방송·통신 중 업무를 담당해서 만학도 학생분들과 직접 만나 함께 공부하고 싶다. 작년 10월 종강 수업에서 학생분들도 더 연장해서 수업을 진행하길 원하셨지만, 학업과 함께하기엔 약간의 부담이 있었고 중학교 영문법 내용을 한번 끝냈기 때문에 계획된 횟수에서 종강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연말까지는 진행해도 괜찮지 않았나 싶다. 올해는 임용고시 준비로 봉사를 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한국은 좁고 내가 계속 교육 쪽에 몸을 담는다면 언젠가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계시면 좋겠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으니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내다 보면 재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교육 봉사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좁디좁은 내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항상 나는 버릇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며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행동은 너무 좁게만 굴었던 것 같다. 이제 나는 '남들처럼 되지 않기 위한 교육자'가 아니라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가 되고 싶어졌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학생분들을 보며 나 자신을 반성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기회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후회 없는 나날을 보낼 것이다. 교학상장의 계기로 삼아 나는 진화한다.

<참가작>

교육봉사를 통하여 바뀐 나의 고정관념

장 용 원
화학교육과

나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대학교 특성상 교육 계열로 시야가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문득 내가 교직에 서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직업 중 교사라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확신을 얻기 위한 교육실습은 3학년 2학기부터 갈 수 있다. 교육실습이 아니라면 교사라는 진로에 대하여 고민해볼 만한 활동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모교에 교육봉사라도 문의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는 말의 반복이었다.

때마침 청주교육지원청에서 「2021.대학생 교육봉사자 매칭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접 학교현장에서 기초학력 및 생활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기에 망설임 없이 지원하였다. 망설임 없이 이 교육봉사에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때로서는 친구와 같이 지원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봉사하러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데 혼자 봉사를 하는 상상은 애초에 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

9월 3일, 내 인생에서의 첫 교육봉사를 하는 날이었다. 사범대학생, 즉 미래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만나게 되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것 같다. '학생이 내 수업을 싫어하게 되면 어찌지'부터 시작하여 '내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야하면 어떡하지'까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어찌저찌 청주시에 위치한 봉정초등학교에 도착해서 교육봉사 담당 선생님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학생 배정을

받았다. 내가 맡게 된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이름은 신유철이다. 유철이의 첫인상은, 우선 정말 귀여웠다. 순한 학생인 것 같아서 먼저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안도감이 들었던 것도 잠시, 곧바로 유철이의 고민거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유철이의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괴롭히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팠다. 평소였으면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니?’, ‘아니면 부모님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했니?’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유철이를 담당하는 예비교사’로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어색할 정도로 공감과 함께 엄청난 위로를 해주었다. 첫 교육봉사 시간은 계획과는 다르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계획에 어긋났다고 해서 아쉽거나 하지는 않았다. 처음 본 순간부터 바로 학습지를 들이미는 것은 사실 교육봉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과외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교사라는 직업은 사교육에 종사하는 직업과는 다르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심리적으로도 의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다. 내가 유철이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철이가 처음 본 나에게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할 때 눈물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직업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날 처음으로 들었다. 아직은 낯선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준 유철이에게는 지금도 정말로 고마운 마음뿐이다. 이렇게 첫 교육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교육봉사다운 교육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교육봉사 두 번째 시간부터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지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유철이의 담임 선생님이 학습지를 건네면서 유철이가 공부를 꽤 잘한다고 말씀해주셨을 때, 유철이와 학습지로 끙끙거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혼자 생각하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선생님의 말씀 그대로 유철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같은 학습지를 동급생이 풀 때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데에 반해 유철이는 암산으로 10분 이내면 해결되었다. 분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도와주는 교육봉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아니어서 유철이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유철이는 그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듣고 너무나 기특했던 나머지 유철이가 공부를 잘해서 내 기분이 좋았던

것은 잊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도와주는 교육봉사가 아닌, 유철이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봉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어릴 적, 동생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기 위하여 직접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내가 처음 교사의 꿈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즐거워서였는데 유철이에게도 문제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즐거워서 교사를 꿈꾸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교사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기분이 이상했다. 실제로 교육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선생님께 다음 학습지를 미리 받아서, 집에서 그 단원에 맞는 문제를 제작하기도 했다.

교육봉사를 진행하면서 힘든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다. 유철이가 워낙에 잘 따라와주어서 그렇겠지만, 굳이 힘든 일을 고르라고 한다면 학습지 활동을 마친 후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는 일이었다. 짧게는 30분, 길면 한 시간 정도가 비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게임을 시켜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때마침 유철이가 좋아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유철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학습지 활동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다. 유철이는 스마트폰을 위해서 학습지 활동을 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단기간에 바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스마트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학습지 문제보다 유철이에게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별도로 제작한 문제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보자마자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때 유철이에게 정말로 스마트폰을 주어도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봤는데, 우선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유철이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힌트를 주어서라도 유철이 스스로가 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어려워 보인다고 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민해보고 해결해야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두 번째로, 학습지를 푸는 과정에서 단원이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단원 전체를 훑으면서 개념설명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학습지를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단원이 끝나면 쉬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 쉬는 시간에는 유철이와 종이 오목 게임을 했다. 스마트폰 게임보다 백만 배는 더 좋을 것을 알기

에 유철이와 종이 오목 게임을 진행하면서는 걱정은 딱히 없었던 것 같다. 스마트폰 게임은 유철이 혼자밖에 할 수 없지만, 종이 오목 게임은 둘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다행히도 유철이는 종이 오목 게임을 좋아했다. 유철이와 종이 오목 게임을 하면서 꽤 많이 친해진 것 같았다. 종이 오목 게임을 이기면 다음 주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고, 승부욕이 불타는 유철이는 오늘의 공부가 끝나도 스마트폰을 덜 찾기 시작했다. 한 문제에 대한 유철이의 고민 시간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교육봉사는 계속되었다.

첫 교육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유철이가 교육봉사 마지막 시간에 너무 아쉽다고 눈물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교육봉사 시간도 여기 봉정초등학교에서 하라는 유철이의 말을 듣고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했다. 기회가 되어 또 다른 교육봉사를 하게 된다면 이번의 경험을 거름삼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교육봉사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봉사를 통하여 바뀐 나의 고정관념이 크게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보지 않은 나머지 교사는 학업적인 면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의 부족한 학업적 역량을 알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유철이처럼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다. 겉보기로는 유철이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지만 학교생활과 성적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마음으로 깨달았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하지만 마음으로는 당연하지 않았던 교직에 대한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교사는 학업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나도 이러한 교사가 되기 위해 다짐하였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내 학창시절에는 사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본다면 내 마음속 어딘가에도 분명 교사에 대한 사랑이 존재했을 것이다. 첫 교육봉사 진행에 앞서 아이가 유철이처럼 순한 아이가 아니라 '장난기가 많은 아이면 어떡하지'라고도 생각하였는데 성격은 성격일 뿐 모든 아이에게는 마음속에 사랑이 존재함을 이번 교육봉사

를 통해 느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직업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봉사 경험이 없었더라면 성장하지 못한 채 내 예전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직에 섰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하다. 이번 경험이 나보다는 내 미래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교육봉사에 임할 때는 60시간이 정말 길다고 느껴졌지만, 미래 내 학생들을 생각하면 아직 턱없는 시간인 것 같다.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 미래의 내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며 교육봉사활동 수기를 마친다.

일까, 나의 조언이 멘티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너희 나이 때엔 다 그래,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크는 거야”와 같은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고 싶진 않았다. 나에겐 가벼운 한 마디가 멘티에겐 커다란 화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학생에게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곧 학교생활이며, 자신의 세상 전부와도 같음을 알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알았기에 나는 그 어떤 말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었다. 나는 많은 고민 끝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선생님도 중학생 때 그런 적 있었다? 선생님도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너도 많이 힘들겠다.” 내가 택한 방법은 ‘공감’이었다. 실제로 중학생 때, 나의 멘티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어제까지는 잘 이야기하던 친구가 오늘은 이상하게 나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말이다. 관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관계에 속해있는 사람이라면 느껴지는 미묘함. 다행히 나의 한마디로 인해 멘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지난번에도 겪은 비슷한 상황과 멘티가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나는 마지막으로 물음을 건넸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멘티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고, 함께 교실로 들어갔다. 이후에 진행되는 활동들은 멘티들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활동이었기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멘티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멘티에게 자연스레 다가가 말동무가 되려고 했다. 그렇게 활동들은 마무리되었고, 수업이 끝날 때쯤 보니 3명의 아이들이 다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 편으로는 또 반복될 관계의 뒤틀림이 걱정되기도 했다. 나는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는 멘토이기에, 나의 도움은 그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밝게 잘 지내는 멘티를 보니 안심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멘토링은 종료되었다. 멘토와 멘티, 서로가 준비한 깜짝 파티를 보며 웃음과 울음이 함께 터졌다. 멘티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멘토들은 쓸쓸한 교실에서 멘티들이 남긴 편지를 읽어 보았다.

‘쌤, 저번에 제가 힘들었을 때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직도 쌤이 해준 말들 기억에 남아요. 제 멘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로 가득찬 이 편지는 나의 울음을 터뜨리기에 충분했다. 사실 멘토의 역할에 대해 무력함을 많이 느꼈었다. 마땅한 해결책과 조언을 제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감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날 이후로 깨닫게 되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공감이란 어쩌면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 있다. 학생들의 세계를 그저 교사가 겪은 과거의 일로 치부해버린다면, ‘친구들한테 먼저 말 좀 걸어보지그래’, ‘네가 뭘 잘 못했겠지, 같이 놀자고 말해봐’와 같은 형식적인 조언과 무책임한 격려가 난무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늘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의 문제를 가볍이 여기지 않도록, 나의 학창 시절처럼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학창 시절 또한 행복한 순간만 가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화된 과거의 기억들로 학생들의 고민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에게는 한 명의 멘티가 더 있다. 두 번째 멘티는 말수가 없고, 무기력했다. 한 번은 희망 진로와 이에 필요한 대학의 계열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이때 나의 멘티는 장래 희망을 묻는 칸에는 지구 폭발이라는 답을 썼고, 대학 계열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아무런 의욕이 없는 멘티와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멘토링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게임과 같은 활동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면 나의 물음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친구들과 활동을 하면 참여를 하고, 친구들과 장난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나의 물음에 대답해주기를 재촉하기보다는, 그저 언젠간 마음의 문을 열겠지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함께 보냈다. 그리고 열흘간의 멘토링도 끝이 났다. 결국 반전은 없었다. 멘티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눌 수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깨달은 점이 있다. 교사의 ‘기다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오늘, 내일의 변화를 바라며 학생들을 재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멘티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깜짝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 나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이 모습들에 감동했고, 충분히 감사하기로 했다. 다른 누군가에겐 사소한 모습들일지라도 나에게겐 결코 사소하지 않았으며, 멘티 스스로의 성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가 원하는 답을 강요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멘토링을 진행하며 멘티들과

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멘토링의 모습으로 흘러가기를 바랐던 것 같다. 사람 간의 의사소통은 정답이 없는 문제임에도, 나의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같다.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정답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멘티의 특성을 무시한 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나 취향이 다르듯 개성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다. 때로는 나의 예상대로,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이 학생들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정형화된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기발함과 유연함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런 학생들의 강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획일화된 교육적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행동이 어떤 학생에게는 힘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로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공감'을, 시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기다림'을 주어야 한다. 또한, 배려 없는 공감과 재촉의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교사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전에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지식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업 재구성 능력, 교육과정 문해력과 같은 지식적인 측면만을 우선시했다. 물론 교사에게는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므로 수업 전달적인 측면의 역량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의 불완전한 자아의 형성을 돕고, 1년의 성장을 함께 하는 조력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공감'과 '기다림'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공감'과 '기다림'의 태도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교사로서의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학생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두 명의 멘티를 통해 예비 교사로서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멘티들과 함께 한 열흘간의 추억은 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잊지 못할 소중한 여름의 기억이다.

<참가작>

함께 걸어가는 길

이 예 림
윤리교육과

고등학생 때부터 교사를 꿈꾸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다.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학교 만들기'이다. 우리 어머니는 다리가 편찮으신 장애인이다.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인해 가난함과 부끄러움을 가득 안은 채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 흔한 학원 한 번 다녀보지 못했을 뿐더러 허름한 집에 산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았었다. 학교에서 항상 기죽은 상태로 바닥만 보며 걸어 다녔던 게 내 청소년기의 기억이다. 그럼에도 공부를 놓지 않으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다. 선생님들은 남는 교사용 자습서를 건네주며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고, 학비 지원이나 각종 장학금을 알아보고 소개해주셨다. 그래서 교사가 되어 나같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레 나의 목표가 되었다.

2018년도에 갓 윤리교육과에 입학하여 교사라는 꿈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기대와 설렘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사범대 학생이라는 자격을 갖춘 이후 첫 교육봉사활동으로 내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던 특수교육 아동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에 친구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대전가원학교에서 방학을 맞이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수업을 해주는 봉사활동이었다. 나는 초등학생 1학년을 맡게 되었는데 봉사활동의 주된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오전 8시 50분에 등원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 수업을 보조한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 지도를 하고 2시에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 돌려보내는

일이었다.

우리 반의 아이들은 모두 지체 장애가 있지만, 대화가 가능한 학생들도 많고 사람들을 좋아했다. 여러 학생 중에서도 예원이와 현규와 있었던 일이 기억에 오래 남아 지금까지도 내게 힘을 주고 있다. 여러 학생 중 나는 예원이와 현규를 집중적으로 맡게 되었는데, 낯가림도 없는지 둘 다 나를 마냥 좋아했다. 너무 예쁜 학생들이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 날 힘들게 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우선 현규는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다. 신발 신는 걸 싫어해서 신발을 안 신고 집에 가려고 내게서 도망치기 일쑤였다. 그리고 신변 처리에 미숙해서 한 번은 바지에 대변을 실수한 적도 있다.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해 먹여줘야 하고, 편식이 심해서 급식시간에 내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현규를 도와줘야 했다. 예원이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내게 욕을 하고 때리는 아이였다. 가방을 메지 않으려고 하거나, 내가 다른 아이를 봐주고 있을 때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곤 했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에서는 고등학생 나이대만 맡아봐서 초등특수 아동의 돌발행동에 화가 나고 지도해도 안 된다는 좌절에 빠졌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생각보다 내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말을 안 듣고 나를 때리기 까지 하는 학생들이 많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 짓고 학생을 무조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술 수업시간에 가위질이나 색칠, 쓰레기 버리기 등 사소한 행동들을 다 해주곤 했다. 급식을 먹을 때에도 잔반 처리할 때 대신 버려주고 양치할 때에도 옆에 꼭 붙어서 물까지 떠줬었다. 놀이 시간에는 블록 놀이에서 원하는 블록 조각을 미리 다 찾아서 앞에 놓아주고 정리도 대신 해줬었다.

그러던 중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생겼다.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를 하며 매번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힘들지만,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얻는 기쁨과 보람에 초점을 맞춰 조언해주셨다. 그리고 특수아동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따뜻하게 타이르기만 하는 것보다는 엄격하게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해주셨다.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도 문제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각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며 사회적 약자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이 오히려 그들을 약자로 만드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도 그들의 자율성의 영역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나의 과도한 선의가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을 스스로 생각을 못하는 존재로 규정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이 행동하도록 강요했던 것 같았다. 선생님과 대화를 한 뒤 나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특수아동의 돌발행동은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동시에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해보려고 했다. 생각을 바꾸고 나니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장애인이라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8살 다운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들로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일반 학급의 학생들도 편식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말 안 듣는 게 일상이고 그 나이대의 일반적인 행동이니까.

우선 수업시간에는 아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데에 집중했다. 피자빵을 만드는 활동에서 어떤 재료부터 빵위에 올려보고 싶은지, 소스는 어떤 모양으로 바르고 싶은지 사소한 것들도 다 의견교류를 했다. 그리고 학생이 도와달라고 한 것 이외에는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재료를 다 얹어버린 얹을지, 요리하다가 장난치진 않을지 걱정되었지만, 생각보다도 아이들은 혼자서 잘 해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완성된 피자빵을 함께 먹으며 ‘현규가 예쁘게 만들어줘서 더 맛있다.’라고 맛있게 먹는 입 모양과 표정을 보여주니 활짝 웃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현규와는 소통이 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통한 느낌이었다.

예원이는 학교 내 놀이시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밀쳐내고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보였었다. 원래 예원이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좋게 말했었다. 이번에는 엄격할 필요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예원이에게 훈계했다. 두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폭력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말해주려 했다. 처음에 손을 잡혔을 때 발버둥을 치며 도망가려고 악을 썼지만, 진정될 때까지 눈을 마주치며 기다리니 점점 차분해졌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엄하게 말하

니 학생 스스로 잘못을 인지했는지 이야기를 잘 듣고 친구에게 사과했다.

학교 내 강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시간에 팝콘을 장난으로 바닥에 다 흩뿌린 학생에게 함께 치우도록 지도하고, 예원이가 귀찮아서 시키는 행동들(물 떠다 주기, 블록 대신 정리해주기)도 스스로 하도록 유도했다. 생각보다 학생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반성도 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끼고 좋아하는 해맑은 아이들이었다. 수업 마지막 날에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말 안 듣던 예원이가 마지막 하굣길은 스스로 척척 준비하고 '선생님 또 보고 싶어요'라고 말해주는 게 감동적이었다. 현규는 평소처럼 일반적인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마지막 날이라고 포옹하는데 세게 안아주는 현규의 마음이 잘 느껴졌다.

나는 다소 짧다면 짧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학교의 프로그램대로 수업을 보조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나의 교육관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시작할 때 말했던 '따뜻한 학교 만들기'를 원래의 나는 어려운 겪는 학생들을 무조건 1순위로 챙겨줘서, 학생을 변화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특수아동들과 함께하면서 무조건 챙겨줘야 한다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생각에서 더 나아가 교사는 일방적으로 베풀고, 학생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교사와 학생은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이며, 학생은 단순히 미성숙하다고만 생각하기보다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가정 고민, 성적 고민, 교우 관계 등의 청소년들의 많은 고민도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관심을 보이면서 이겨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1학년 때의 이 경험은 이후 교육현장활동이나 대외 멘토링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을 대하는 데에 있어 다른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게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학생에게 힘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이는 충동성이 성장과정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니 수업시간 중 노래를 부르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 등의 돌발행동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예원과 현규와

의 만남은 힘들기도 했지만, 나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앞으로 만날 학생들을 품어줄 양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오늘도 나의 학생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꿈꾼다.

<참가작>

敎奉問答(교봉문답)-봉사를 통해 성장과 배움을 이루다.

신 황
수학교육과

조선 후기의 실학자 홍대용의 【의산문답】의 형식을 일부 활용하여 문답 형태로 한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A와 B가 교육봉사활동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교육봉사활동을 신청한 방법, 구체적 활동 사항,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변화된 점과 느낀 점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A :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비대면 상황이라서 학교 내에서 누구 만나기도 힘들고,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아... 듣자하니 2학년 여름 방학에 교육봉사를 모두 마친 선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배한테 물어볼까?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서 물어봐야겠다.

A : 안녕하세요. 선배님, 교육봉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며칠 전에 연락드렸는데,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물어볼 것이 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 : 네 괜찮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A :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봉사활동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B : 처음에는 인근 교육청의 구인 페이지를 매일 확인하다가 마땅한 교육봉사를 찾기가 힘들어서 1365 봉사활동포털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A : 검색할 때 활동 분야를 “교육”으로 설정한 다음에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 B : 맞습니다. 참고로 활동 분야가 “교육”으로 되어 있어도 학교에서 교육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A : 그렇군요. 그냥 봉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점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선배님께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B : 저는 수학교육과인데, 정말 운이 좋게도 본가 주변에서 수학 관련 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수학문화관”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렸을 때 과학관 한번 가보신 적 있죠? 거기에서 체험 부스, 기구가 수학과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연구, 수업 보조, 부스 안내 등을 했습니다.
- A : 잠시만요. 연구라고요? 아니 그러면 선배님께서 직접 수학에 대해 연구를 하신 건가요?
- B : 거창하게 연구라고 했는데, 전시된 수학 교구, 기구에 대해 수학적 원리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 A : 네! 네! 흥미로운 내용인데, 다 말해주세요!
- B :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봉사활동을 처음 갔을 때 한 활동인데, 누르면 불이 켜지고, 꺼지는 버튼이 원의 옆로 8개가 나열된 것을 상상해보세요. 초기엔 모든 불이 꺼져있는 상태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과 그 버튼 양옆의 2개의 버튼이 켜집니다. 그리고 켜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이 꺼지고, 누르지 않더라도 누른 버튼 옆의 버튼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그 옆에 있던 버튼이 꺼지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기구에 대해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저에게 생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 A :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B :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8번까지의 버튼이 원형으로 나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1번 버튼 옆에는 8번과 2번, 2번 버튼 옆에는 1번과 3번...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겠죠? 제가 만약에 모든 버튼이 꺼진 상황에서 1번 버튼을 누르면 1, 2, 8번이 켜

지고, 그 다음에 2번을 누른다면 1, 2번이 꺼지고, 3번이 켜져서 최종적으로 3번과 8번이 켜져 있겠죠?

A :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잘 되었나요?

B : 운이 좋게도 제가 2학년 1학기에 학교에서 선형대수학을 수강했는데, 맨 처음 시간에 교수님께서 선형대수학의 적용과 문제해결에서의 사용 예시를 설명해주시면서 비슷한 문제를 소개해 주셔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수론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불이 켜진 버튼을 1, 불이 꺼진 버튼을 0으로 취급해서 행렬과 방정식을 풀어서 어떻게 버튼을 눌러야 1~8번 모든 버튼의 불을 켤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 : 와... 대단하십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이 특히 멋진 것 같아요...

B : 과찬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정다면체 아시죠? 정다면체 거울이라는 수학 교구인데,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정다면체 거울에 옆면을 이루는 정다각형 하나를 놓으면 거울면에 반사되면서 그 정다면체가 나타나는 교구입니다. 예를 들어 정육면체 거울에 정사각형을 놓으면 정육면체가 나타나고, 정이십면체 거울에 정삼각형으로 놓으면 정이십면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울 사이의 각도에 따라 상의 개수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A :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느낌상 거울, 반사라는 키워드를 들어보니 물리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B : 네 맞습니다. 제가 물리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생 때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광학 지식과 작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리를 공부하지 않았고, 정다면체같은 입체도형의 면끼리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울 사이를 이루는 각에 따라 거울면에 나타나는 물체의 상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 하나 작도해보면서 특수각(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80도)에서 상의 개수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이에 해당 케이스를 모두 그려보고, 여러 차례 검토하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만 며칠 동

안 고민하고, 연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머리가 아픈 주제 이긴 했지만, 막상 끝내고 보니까 보람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정다면체에 대해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본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2학년 2학기에 그니까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학교에서 “현대기하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는데, 수업 중에 정다면체와 관련된 내용과 반사와 작도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때 한 것에서 큰 도움이 되어서 교수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고, 수업 내용 이해도 잘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선형대수학을 활용한 연구 이야기와는 반대로 봉사활동에서 한 내용이 학교 수업에서 도움이 된 경우네요.

A : 수학교육과이시고,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 활동 이외에도 아까 언급해주셨던 수업 보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건 뭔가요?

B : 대전수학문화관은 현직 선생님들께서 파견교사로 와 계시는데, 방학 중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AI의 활용”과 “펜토미노”입니다. AI활용 수업에서는 다양한 사진으로 학습을 시킨 후에 AI의 기초적 원리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습 자료 및 부스 연구 활동을 하다가 선생님들께서 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어서 긴장이 되었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저도 큰 어려움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A : AI라는 용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뉴스, 인터넷에서도 많이 들어본 건데, 그것을 봉사활동에서 접해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보면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는데, 오히려 배운 것들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나저나 펜토미노라는 용어는 생소한데요. 이건 무엇인가요?

B : 어렸을 때, 칠교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해진 조각으로 특정 모양을 만드는 일종의 퍼즐입니다. 그런데, 펜토미노의 묘미는 같은 모양이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수업 보조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수

업에서 하게 되는 모든 과제와 활동 사항들을 풀어보고 봉사활동에 임했는데요. 학생들이 역시나 잘 참여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서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힌트를 하나 주거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 배웠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단순히 그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생소하거나, 어려운 것을 접근할 경우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으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진짜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A : 교육봉사활동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네요. 특히나 저는 처음 봉사활동이라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제가 어떤 것을 하고, 전달하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스 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B : 미술관에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전수학문화관에는 수학의 원리가 있는 다양한 체험 기구가 전시되어 있으며, 견학을 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체험 방법과 거기에 담겨있는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A : 맨 처음에 버튼 누르기와 정다면체 거울 연구에 대해 언급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들도 전시된 체험 부스인가요?

B :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연구의 목적도 최대한 수학적 원리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 방식을 탐색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버튼 눌러서 모든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기구 역시 대부분은 그냥 버튼만 눌러보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해 봤던 것이고, 그것과 함께 직접 설명하면서 제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A : 연구, 부스 안내, 수업 보조 이 모든 활동들이 결국 “학생들에게 수학의 원리를 전달하고,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로 되는 거네요.

- B :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과도 여러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봉사가 끝나고 남는 시간에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대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수학 선생님들과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직 생활과 수학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교직에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 A :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지만, 선배님께서 오히려 배운 점들도 많으시군요. 저 역시도 그런 “쌍방향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B :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졸업 요건으로 요구하니까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0시간이었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하는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배님께서도 이렇게 봉사활동에 임하시면 분명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것들을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 A :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꼭 그런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 B :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좋네요! 다음에도 문의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A : 네 감사합니다.

<참가작>

스토리가 있는 수업의 힘이란...

위 정 환
지구과학교육과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싶다]

누구나 자신의 수업에 대한 가치관이 있기 마련이다. 누군가는 교과 지식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치관,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치관 등등 각자마다 고유의 방식대로 지켜온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그 가치관을 선사하여 멋있는 수업을 만들고자 각자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다. 나는 내가 교사를 꿈꿔온 순간부터 항상 ‘스토리가 있는 수업’이라는 하나의 고유한 가치관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과외 할 때 사용하는 교재 이름도 스토리가 있는 교재이고,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도 스토리가 있는 지구과학이다. 이 정도로 나는 매사에 아이들에게 스토리가 있는 수업을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고민에 빠졌다. ‘나의 스토리가 과연 모든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까?’ 사실 2년 동안 서로 다른 대학교 1학년을 2번 거쳐 가며 총 스무 명이 넘는 과외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그 때는 언제나 1 : 1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준비해간 스토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충분히 잘 이해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토리를 준다고 하였을 때, 그 아이들이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또한, 나는 항상 과외를 통해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만을 만나왔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내 이야기를 들어서 각자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으며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

을까? 등등 참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혹은 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테스트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는 2021학년도 하계 교육활동 현장에 참여하고자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내가 교육활동 지원을 넣은 학교는 진천에 있는 삼수초등학교였고,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다. 나는 오래 전부터 아빠 덕분에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생활과 한국 생활을 병행하며 살아온 만큼 해외에 대해 더 넓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이 수업에 집중하여 열심히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과외와 같은 사적인 자리가 아닌 정말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교육관이 정말 아이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가치관이었을까에 대해 제대로 한 번쯤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 만큼 이 수업 준비에 대한 책임감을 아주 남다르게 준비하게 되었다.

[한 번쯤은 알리고 싶다]

수업 대상이 다문화 초등학생들이었던 만큼 언어적으로 너무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업 주제로 삼지 않기로 하며 찬찬히 내용을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내 전공이 지구과학인 만큼 과연 너무 전문적이지 않으면서 실용적이고 아이들이 나의 수업을 들은 후 실천하며 내 스토리를 적용해나갈 수 있는 수업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월-E'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아주 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오염되어버린 지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후, 아직도 쓰레기가 가득한 2800년에 지구에서 홀로 남아 살아가는 월-E라는 로봇이 외부에서 지구로 탐사를 온 로봇 '이브'와 함께 겪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놓은 영화이다. 대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문화 아이들이 보기에 쉬우며, 이 영화 속 내용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나 하나의 수업에 꼭 하나의 이야기 담겨 여러 활동이 있더라도 그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는 수업을 지망하는데, 그 이야기가 월-E라는 영화 하나로 정리가 된다면, 더욱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몰입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였다. 그 수업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

초록빛 세상'이다.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구상한 후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총 진천삼수초등학교에서 2번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각 수업을 진행할 때 한 반에는 대략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영화 월-E의 앞부분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들 스스로 하여금 쓰레기가 가득한 지구의 모습을 본 후 느끼는 감정과 이 감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느낄 수 있게끔 유도했다. 다문화 아이들이라 서로 조금씩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지라도, 아니 다양할지라도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은 모두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졌었다. 이때, 아이들은 다른 것보다도 월-E라는 로봇이 지구에 홀로 남아 하고 있는 일에 주목하였다.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류하며 일정하게 모양을 잡아서 정리하고 있는 월-E의 모습에 다들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 소재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리수거' 활동으로 연계하였다. 모두가 분리수거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그 분리수거를 원초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나였기에 조를 구성하고 각 조에 분리수거 물품들을 제공하였다. 제공된 물품에는 라벨이 붙어있는 페트병, 종이컵,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전단지 등이 존재했다. 각 조의 조원끼리 상의를 한 후 앞에 나와 준비되어있는 분리수거 박스에 분리수거를 직접 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냥 갑자기 분리수거 활동을 진행했다면, 물입이 조금 깨졌을 수도 있을텐데 다행히도 영화 내용과 연결되다 보니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하는 듯했다. 분리수거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리수거에 대한 정의와 그 원리에 대해 간단하지만 재미있게 설명을 했기에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분리수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전단지가 종이가 아닌 일반쓰레기라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모두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해냈다. 전단지는 물에 젖지 않기 때문에 종이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라는 점도 함께 언급을 해주었다.) 그리고 일회용품이 썩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수치적으로 보여주며 아이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다음 활동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감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매번 쉬는 시간마다 뛰어다니며 놀고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들 제자리

에 앉아 학교 측에서 나누어준 음료수의 라벨을 모두 뜯어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박스에 넣고 있던 장면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한 두 명의 아이들이 시작했지만, 이후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분리수거 박스에 넣으며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때 진심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난 지금까지 과외를 통해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돕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준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준비한 스토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큰 떨림과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나니 진정으로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소중한 스토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과 행복감이 함께 들었던 것 같다. 그 다음 활동을 더욱 신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쉬는 시간이 끝난 후, 월-E의 중반부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 장면 속에서 월-E는 쓰레기를 치우던 중 새싹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새싹 하나를 자신이 갖고 있던 흰 신발 속에 잘 심은 후 소중하게 다루어 자신의 집에 가져간다. 이처럼 식물을 심는 것이 분리수거와 같이 또 다른 하나의 환경 보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 학습하며 이전 활동인 분리수거와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이 씨앗을 에코팻에 심어보는 활동을 직접 진행하며 누구나 쉽게 환경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도록 하였다. 역시 아이들은 분리수거 활동보다도 더욱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흙을 만져보며 씨앗을 다루어보며 심는 과정을 통해 별 것 아닌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나중에 우리 지구를 위해 불러올 결과는 아주 아름다울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각 아이들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 심은 에코팻에 환경을 위해 앞으로 지킬 약속 1가지를 정해 스티커 용지에 쓰고 예쁘게 꾸며서 화분에 붙이도록 했다. 아이들은 씨앗을 심는 활동 자체에도 매력을 느꼈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이 씨앗을 심고 있는 에코팻에 주목했다. 사실, 이 에코팻은 우리가 카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이다. 영화 속에서 월-E라는 로봇이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던 신발을 어느덧 새싹이 예쁘게 자란 식물 화분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식물 화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 활동의 소소한 목표 중 하나였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에게 잘 전

달된듯하였다.

마지막으로, 월-E의 엔딩 장면을 보여주었다. 초반에는 쓰레기로 뒤덮여 지구가 온통 오염 덩어리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소소한 환경 보호 행동이 하나씩 모여 결국 식물들이 땅을 뒤덮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즉, 오늘 우리가 했던 분리수거 활동이나 식물 심기 활동과 같이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결국 우리 지구도 이보다 더 나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 초록빛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도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며 소감을 나누고 마무리하였다.

내가 준비해간 수업은 여기까지이다. 내가 준비했던 스토리는 월-E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또 새싹을 예쁘게 가꾸며 이 행위가 많은 이들에게 퍼져 결국 우리 지구가 다시 초록빛 세상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구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 초록빛 세상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는 스토리였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나의 수업이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아이들이 행동 하나 하나로 직접 보여주며 실천할 수 있는 수업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가 준비해간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잘 이해되었고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다. 사실 나는 지구과학교육과인 만큼 환경에 어릴 때부터 항상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나를 현재의 '나'까지 데려다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 생각은 항상 해보지만, 막상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꽤나 어려워하는 편이다. 환경을 지켜 우리 지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그냥 막막하고, 나 하나쯤의 행동이 이 커다란 지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며 다들 그냥 무시하기 마련이다. 어른들일수록 사실 더욱 그러한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아이들은 정말 나의 수업을 듣고 우리 지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며 진정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수업을 마무리한 것 같았다. 나는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알리고 싶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에는 아주 커다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속도가 느리던지 빠르던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항상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 번쯤은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

이번 교육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것보다도 내가 준비했던 스토리가 정말 그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였지만, 그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그 스토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교육 현장에서 각자 적합한 곳에서 더 아름다운 향기로 전달될 것을 확신한다.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주로 내 전공과 관련된 스토리만을 만들고 전달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선생님들이 준비해 오신 수업을 보면서 아주 다양한 폭으로 내 스토리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구도 환경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세상에는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다루려면 더 다양한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게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각자 재능이 다른, 각자 관심사가 다른 아이들에게 모두 각자에게 걸맞는 스토리로 들어가서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21세기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2022년도에도 다른 학교로 교육 봉사 활동을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다른 주제의 스토리로 또 아이들에게 찾아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자 한다. 그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 또한 여러 매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다양한 스토리들을 접하고 있고, 그 중 내게 잘 몰입되었던 요소를 골라 나만의 색다른 스토리로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것 또한 다양한 스토리의 일부가 될 것이기에 그 과정이 기대가 된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까지도 고마움을 잘 느끼고 있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꼭 그때 배웠던 스토리가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 앉아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교육봉사 수기 공모전 에세이 스토리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그럼 나는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러 이만 :) 감사합니다.